

## “나는 5학년입니다” 그들은 왜 교정을 떠나지 못하는가...

초과학기로 인해 교정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A군과 같은 학생이다. 그는 지금 5학년이다. 오늘도 강의를 듣기 위해 그는 가방을 맨다. 최근 A군과 같은 학생을 'NG(No Graduation)족'이라고 부른다. NG족은 학교를 오래 다니고 있는 선배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신조어다.

### 초과학과 졸업유예, 그 차이는?

현재 A군과 같은 5학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초과학기뿐만 아니라 '졸업유예'의 이유도 있다. 졸업유예란 수업연한 내에 졸업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졸업하지 않고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로 '졸업연기', '졸업유예', '계속수학' 등의 명칭으로도 불린다. 졸업유예제도는 시행중인 대학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대학으로 나뉜다.

반면 초과학기는 별도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졸업학점을 8학기 내에 이수하지 못해 본교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초과 학기를 다녀야 하는 것을 초과학기라고 한다. 본교는 졸업유예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 초과학과 졸업유예, 등록금은 어떻게 징수하는가

대부분의 대학은 초과학과 졸업유예생들에게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다. 졸업유예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강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등록금은 최고 7만원에서 감면까지 편차가 크다. 한양대는 한 과목을 수강할 경우 소속 대학 등록금의 1/6을 내야 하고 세명대는 6학점까지는 감면이다.

이에 반해 초과학기 등록금은 법적으로 등록금의 일부 범위만 징수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본교의 초과학기자가 납부할 등록금은 아래와 같다.

### 수강신청에 관한 세칙

제13조 (수업연한 초과 학생의 등록 및 수강신청) ① 졸업학점미달로 인해 9학기 이상 등록해야 하는 학생도 수강신청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졸업학점 미달로 8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의 학점당 등록금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4. 3.23) (2007. 9.18) ③ 학점당 등록금은 재적 학과(전공)에 따른다.

### 대학들이 '5학년'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

많은 대학들이 졸업유예와 관련해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다. 학생의 증가로 인해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행정비용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김삼후(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부가 대학 평가지표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교육비확률 등을 지표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졸업유예생'이 많을 경우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대학들이 졸업유예 기준을 까다롭게 개정하거나, 졸업유예를 선택 한 학생들에게 등록금 등의 비용을 부담 시키면서 대학 수입을 늘리는 효과를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본교 4학년 학기수별 인원현황〉

	9학기	10학기	11학기	12학기	13학기	14학기	계
인문대학	60	5	2	3	2		72
사회과학대학	83	10	2		2	1	98
예술대학	45	8	5		2		60
공과대학	71	9	5	2	1		88
계	259	32	14	5	7	1	318

(단위: 명)

### 본교에는 왜 '졸업유예'제도가 없나

교육부가 실제 조사한 전국 176개 대학 중 졸업유예를 실시하는 학교는 110개교(62.5%)다. 졸업유예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비율이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이 더 높고, 2008년 금융위기와 정부의 평가 사업 이후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교가 졸업유예를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순자(학사지원팀) 팀원은 "졸업유예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2013년도 타 대학 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며 "졸업유예제도의 시행 이후 유예신청 학생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유예 신청하는 학생은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생부담 가중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본교의 초과학기자 현황은 어떠한가

그렇다면 본교의 초과학기자 재학생 현

황은 어떠한가. 현 4학년 학기수별 인원은 인문대학 385명, 사회과학대학 616명, 예술대학 418명, 공과대학 562명으로 총 1,98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9학기 이상 재학생은 총 318명으로 인문대 72명(23%), 사회과학대학 98명(31%), 예술대학 60명(19%), 공과대학 88명(27%)이다.

### 그들이 5학년으로 남아있는 이유

#### 초과학과는 '전략적' 선택이다

앞서 소개했던 A군은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초과학과를 이수하고 있다. 그는 초과학과를 두고 "최소한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누리는 전략이다"고 했다. 그는 취업을 전제로 했다. 그는 이번 학기 동안 한 과목만 들으며 남은 시간을 학업과 인턴을 병행하고 있다. 그는 "현재 기업들이 스펙을 제외하고 구직을 하고 있다 해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졸업생보다 졸업예정자나 재학생 채용을 선호하는 기업 인식도 한

몫 했다"고 초과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 초과학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반면 B군은 초과학과를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필수졸업요건인 핵심교양을 다 듣지 못해서이다. 그는 "처음 수강신청에 실패를 하자 도미노처럼 이후의 수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현재 같은 처지의 4학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전공을 위해 초과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도 있다. C학생은 "각기 전공별 강의 시간이 상이해 항상 내가 원하던 대로 시간표가 짜여지지 않았다"며 "강의 시간이 서로 겹치는 등 시간이 맞지 않아 자연스럽게 수강을 다음 학기로 미뤘다"고 말했다. 복수전공까지 이수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초과학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혜정 기자 hippo96@hansung.ac.kr

### 지면안내

보도 02  
본교 중앙기구 소통 만족도는?

사회 03  
생계형 노동이 된 아르바이트



사람사 05  
아주 사적인 시간 - 김승진 선장을 만나다



제9회 사진공모전 06~07

문화 09  
비산 락페스티벌은 그만! 이젠 라이브 공연을 저렴하게 즐겨라



기획 독자, 팬을 듣다 10  
① '우리, 집이란 걸 가질 수 있을까?'  
② 다시 찾은 엄마의 사춘기, 평년기에 대하여

기획 낯설게 산다는 것 11

기획 전통, 청년들을 불러다 12



### 동정란

**정성훈(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정 교수는 5월 28일~5월 30일 안동문화예술포럼에서 개최되는 2015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학부생 오진우, 송정현 학생과 작성한 논문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자동작곡시스템에서 박자 및 화성 후처리 방법'을 발표했다.

**김상봉(경제학과) 교수**  
김 교수는 세계인명사전인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6(33rd Edition)' 판에 등재되었다.

**공호근(융복합교육과) 교수**  
공 교수는 5월 28일에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총대의장이 총학생회장의 권한 검임, 하지만 공식적 발표는 없어

학생회칙에 따르면 '학생회칙 제5장 30조 3항.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권위되거나 대의원총회에서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탄핵시 대의원 의장이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본교의 총학생회는 두 번의 보궐선거가 무산된 가운데 최치현(컴공 4) 총대의장이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검임하게 되었다. 이미 지난 4월 6일부터 구조개혁추진위원회 학생대표로 속한(위원임)바 있다.

한편, 지난달 15일 '스승의 날' 행사에서 총대의장이 남은 임기동안 총학생회장의 역할도 검임 한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밝혀졌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 대의원총회에서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진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 2차 대의원총회에서 5개 안전 가결돼



지난 5월 28일 2015년 상반기 2차 대의원총회가 낙산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재적인원 152명 중 100명의 출석으로 진행되었다. 회의는 제31대 총대의원회 최치현(컴공 4) 총대의장이 진행했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감사 시행 세칙 및 선거 시행 세칙, ▲학생 감사 부칙, ▲공통사업과 행사 관련 감사 시행 규칙, ▲회의비 관련 감사 시행 규칙, ▲영수증 규격 감사 시행 규칙 순으로 5개 인준 안건의 심의가 이뤄졌다. 인준 안건은 거수결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5개 모두 가결되었다.

가장 먼저 진행된 인준 안건은 지난 보궐선거 당시 논란이 되었던 회칙과 세칙에 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보궐선거에서 부결된 후보자가 재등록을 하며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는 회칙과 세칙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해석의 애매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회칙을 우선 순위로 두고, 이외의 것을 세칙에서 다룬다는 것이다. 이 안건은 의결 결과 재적수 152명 중 투표 참여 87명, 그중 찬성 67명으로 가결됐다.

다음으로 학생 감사 부칙에 대한 인준 안건은 '한 행사에 따른 회식비는 전체 예산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회식비의 비율은 전체 운영비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이 두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학생회칙에 '전체사업의 회식비는 전체 예산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인준 안건으로 낸 두 부분이 회식비에 대한 제한사항이 중복되어 있다. 그래서 위 두 안건을 삭제하여 회식비 사용에 있어 자유로움을 준다는 것이다. 의결 결과 재적수 152명 중 투표 참여 91명 그중 찬성 67명으로 가결됐다.

세 번째 순서로 진행된 인준 안건은 '공통사업(개강파티, 엔터, 신입생 환영회, 과반)은 회식이 아닌 사업으로 편성하고, 이외의 다른 행사의 경우 각과의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사업계획서에 첨부할 시 사업으로 편성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 감사시행규칙은 전날인 27일 진행된 상임위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나왔다. 회식비와 사업비의 구분이 불분명해서 이를 정확하게 명시하고자 공통사업과 이외의 행사로 나누게 되었다. 의결 결과 재적수 152명 중 투표 참여 92명 그중 찬성 62명으로 가결됐다.

네 번째 순서로 진행된 인준 안건은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회의비용은 해당 행사에 산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단, 회의비는 해당 회의의 참여인원 당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기존의 조항을 '해당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전체 회의비용은 최대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바꾸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조항은 회의비용이 회의를 가질 때마다 회의비용인지 전체회의의 비용인지 명확하지 않아 모호한 부분이었고, 행사의 크기에 따라 회의비의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전체회의'라고 바꾸고, '최대 10만원'으로 회의비용에 상한선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 안건에 대해 대의원들은 회의비 조항은 아예 삭제되어야 한다고, '회의비를 두되 최대금액을 낮추자'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의결 내용은 심의를 통해 해당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전체사업에 대한 회의비는 최대 10만원, 공통사업 당 최대 2만원, 그 외 사업 당 최대 2만원'으로 수정됐으며 의결 결과 재적수 152명 중

94명이 투표에 참여 그 중 34명의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심의를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의결 결과 재적수 152명중 94명이 투표에 참여 그 중 55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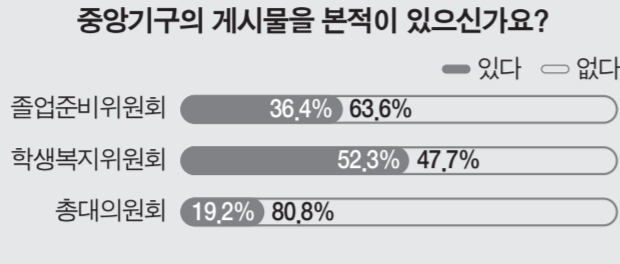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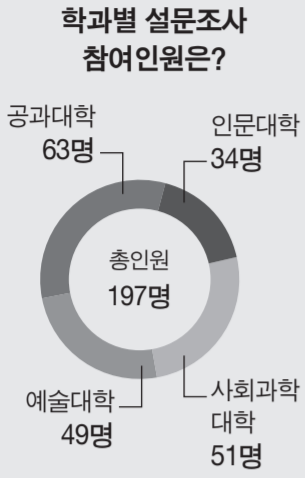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진행된 인준 안건은 기존의 '영수증이 규격 영수증이 아닌 경우 금전수령자의 이름, 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경고'조치한다. (학내의 단위와 단위간의 거래에는 수령하는 단위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 학우와의 거래는 지불하는 단위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또한, 학외의 단체 또는 타 학교, 개인과의 거래시 금전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 이름, 연락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안건에 '또한 영수증에 품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간이영수증을 추가로 만들어 품목을 명시해 주어야 한다'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영수증의 경우 물품의 금액만 나올 뿐 품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감사에 있어 확인이 어려울 부분이다. 이는 영수증에 따른 품목을 정확히 명시하여 감사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의결 결과 재적수 152명중 투표 참여 95명 그 중 55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대의원총회 당시 참석 인원은 100명이었으나 회의 중간에 일부 대의원들이 이탈하여 참석 인원은 대의원총회가 끝날 무렵 95명이었다. 이에 대해 대의원총회 이후 중간에 이탈하는 대의원들이 있어 안전마다 인준 투표 인원이 달라지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진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 본교 중앙기구 소통 만족도는?

중앙기구는 얼마만큼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막힘없이 전달하고 있을까? 학생들은 이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이에 본지는 본교 중앙기구와 학생들의 소통에 대한 만족도와 본교 중앙기구를 학생들이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성대신문사 페이스북 페이지와 서면 질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게시물을 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 관심이 없다
- 홍보가 부족하다
- 소통이 되지 않아서
- 등등

### 졸업준비위원회 게시글 현황

낙산의메아리 → 최대 조회수 130  
공지 34개  
행사·이벤트 4개  
설문조사 0  
기타 0

페이스북 → 최대 좋아요수 49  
최대 댓글수 50  
공지 17개  
행사·이벤트 13개  
설문조사 3개  
기타 9개

### 학생복지위원회 게시글 현황

낙산의메아리 → 최대 조회수 899  
공지 12개  
행사·이벤트 2개  
설문조사 0  
기타 0

페이스북 → 최대 좋아요수 98  
최대 댓글수 85  
공지 17개  
행사·이벤트 9개  
설문조사 0개  
기타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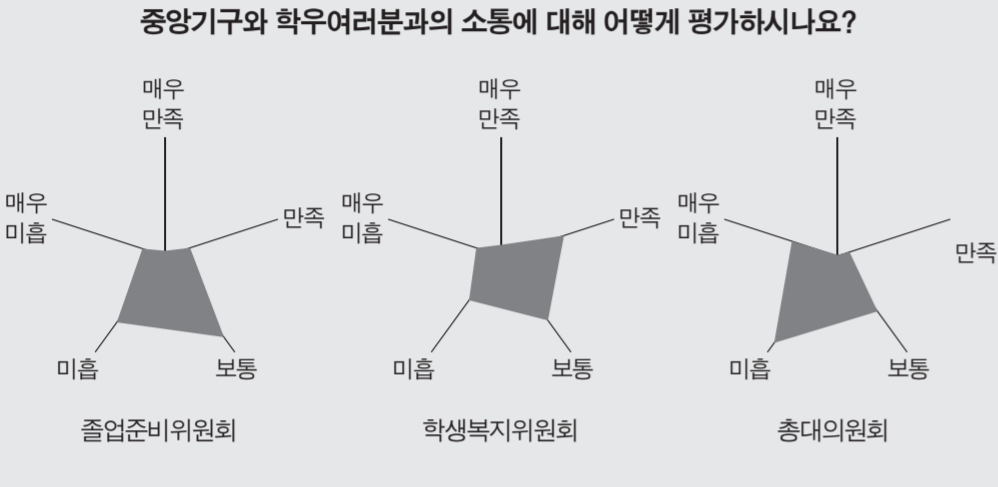
### 총대의원회 게시글 현황

낙산의메아리 → 최대 조회수 1110  
공지 6개  
행사·이벤트 0  
설문조사 0  
기타 0

페이스북 → 최대 좋아요수 12  
최대 댓글수 4  
공지 2개  
행사·이벤트 0  
설문조사 0  
기타 4개

중앙기구가 올린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이번 학기 본교의 뜨거운 감자였던 학과 통·폐합 관련 게시글과 이벤트 진행 게시글에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전체 학생대비 약 15.8%에 미치지 않는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중앙기구가 적극적인 소통을 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냈다. 이벤트성의 단발적인 소통이 아닌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중앙기구를 기대해 본다.

한자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 '2015년 한성 우리들의 작은 가게 대회' Season3 「청춘셀러파티」 시상식 진행해



지난 5월 27일 총장실에서 '2015년 한성 우리들의 작은 가게 대회' Season3 「청춘셀러파티」(이하 우가게)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1등을 김다혜(메티 3), 김민경(메티 3), 이원경(메티 3), 강나윤(메티 3)으로 구성된 레이디퍼져 팀으로 어버이날에 맞춰 카네이션 디퓨저와 레고 팔찌 및 캐릭터 팔찌를 판매해 총 283만 원의 수익을 거뒀었다. 2등에는 마이보틀과 에이드를 판매한 마이에이드 팀, 3등에는 소갈비살 꼬치를 판매한 맛있겠다 꼬치 팀, 인기상에는 떠먹는 군고구마를 판매한 떠먹 팀이 수상했다.

1등을 차지한 레이디퍼져 팀은 사업을 계획할 때 디퓨저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재고가 남을 경우를 대비하여 우가게가 진행되는 3일 동안 50개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첫 날에 목표한 수량을 모두 판매해 정말 놀랐다"며 "우가게가 진행되는 3일 동안 디퓨저는 266개, 팔찌는 100개 정도 판매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우가게 총 매출액의 일부인 220만 원은 학교발전기금 대신에 최근 대지진이 발생한 네팔의 유학생 프러모드(경영 1), 벌사(경영 1)에게 장학기금으로 전달했다.

오혜진 기자 dhgpwts0424@hansung.ac.kr

# 논리와 사고력의 장이 열린다



지난 5월 21일 목요일 제 10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가 낙산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글쓰기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학의 모습], [요리 혹은 '음식'이 나에게 주는 의미], [드론의 활용 사례와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이 세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1000문 동안 글을 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글쓰기 대회에는 다양한 단과대학 학생들이 참가했다. 인문대학 62명, 사회과학대학 71명, 예술대학 60명, 공과대학 33명이 참가해 총 226명의 학생들이 이번 글쓰기 대회에서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을

을 원고지에 펼쳤다. 이 가운데 공과대학 소속의 학생들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에 참가한 마경호(역사문화 1) 학생은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해서 이번 글쓰기 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글쓰기 대회를 통해서 색다른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글을 써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대회의 심사는 1차·2차 예심을 거친 후 3차 본심을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4명, 장려상 8명을 선별한다.

박종수 수습기자 pjs12041204@hansung.ac.kr

# 축제 없는 본교, 단과대학별·학과별로 행사 진행

지난주 대학가는 축제기간이었다. 본교는 종합관 신축으로 인해 교내에서 축제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단과대 학생회와 각 학과 학생회가 축제 대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예술대는 지난 18일, 19일에 잔디광장에서 소소마켓을 개최했다. 예술대 소속 학과의 소모임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물품을 팔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유예빈(외국어 3) 예술대 학생회장은 "예대에는 학교 내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소모임이 많다. 그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학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공과대는 지난 21, 22일 월곡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임재승(기계 4) 공과대 학생회장은 "공과대는 학우간의 연대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학교의 도움을 받아 외부에서 체전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회과학대는 4월 29일, 30일 5월 4일부터 7일까지 낙산관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했으며 인문대는 2학기에 체육대전과 '책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영학과, 행정학과, 무역학과, 부동산학과, 지식정보학과, 역사역문화부, 한국어 문학부 각 단과 학생회들은 주점을 열었다. 최홍석(한국어문 4) 한국어문학부 학생회장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졸업했을 때 기억에 남을 추억거리는 있어야 할 것 같아 일일호프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축제와 관련하여 최치현(컴공 4) 총대의원장은 "학교가 힘든 상황이기 했지만 그 동안 학우들이 놀고 즐길 기회가 거의 없었다"며 "서울예대 등 외부에서 축제를 진행한 사례가 있어 2학기에 대동제가 개최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축제에 수천만 원을 들여 경쟁하듯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는 것을 두고 축제문화가 상업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학마다 고유의 축제문화도 없이 대부분의 학교가 비슷한 형태로 유명 연예인을 부르거나 일일주점을 운영하는 것에만 그쳐, '학생이 주인공인 축제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양대, 건국대, 서울대, 덕성여대 등 몇몇 대학교는 축제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여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는 열정페이와 갑질에 저항하는 축제 '일해라 절해라'를 기획하여 청년 비정규직화를 비판 '도전! 정규직' 퀴즈대회, 갑질관계를 부딪혀라 '갑을버블'게임, 재벌2세를 풍자한 물총게임 '금수저·은수저'를 진행했다. 건국대학교 영화과는 주점에서 차림판의 세트 메뉴이름을 일방 개편을 통보받은 심정을 체험하기 위한 '통보세트', '학과 내실화한다'는 학교 주장과 달리 학생 피해 크다를 강조한 '내실화세트'로 정해 진행하였다.

노유진 기자 lyj32108@hansung.ac.kr

# 교직수업실연대회 성황리에 열려



지난 5월 27일 오후 3시 미래관 EL에서는 교직수업실연대회가 열렸다. 총 4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20명 분석 수업을 실현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대회는 개회사와 심사위원 소개, 수업실연, 그리고 심사위원의 심사평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사를 맡은 신재홍(교원양성교육과정 및 교육대학원) 주임교수는 "예비 교사인 여러 분들을 위한 대회"라며 "이번 대회로 인해 교직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수업실연 능력을 배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회의 심사기준은 학습 목표 제시 여부, 사전지식과 학습내용 연결의 매력, 수업전략 등 총 아홉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심사를 맡은 이귀영 한성여중 교장은 "선생님이 학생과 상호작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학생이 핵심을 기억하는 수업, 학생이 즐거워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다"고 말하며 예비 교사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대회에 참여한 김민지(한국어문4) 학생은 "중등 임용시험 2차 때 하게 될 수업 실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여했다"며 대회 참여로 인해 "수업실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회의 심사기준은 학습 목표 제시

김민정 수습기자 kmj@hansung.ac.kr

# 한성대 IPP사업 학생설명회 개최 안내

일시 2015년 6월 4일(목) 16:00  
장소 탐구관 지하 101호

## IPP란?

-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의 약어로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제도 (4~10개월)를 말합니다.
- 대학교 학업학과와 산업체 전일제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한국형 장기현장실습제도입니다.
- 기업고민과 학생고민을 동시에 해결하여 기업, 학생, 대학이 모두 Win-Win하는 산학협력교육모델, 산학연계교육모델을 의미합니다.

- 1. IPP 해당학과**
    - 가. 공학계열: 멀티미디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6개 주간학과)
    - 나. 상경계열: 경영학부, 무역학과, 경제학과, 부동산학과 (4개 주간학과)  
\*해당 10개 학과 복수전공학생도 참여 가능하며, 3학년과 4학년 학생이 참여 대상임
  - 2. IPP형 일학습병행제 참여시 학생 입장에서 7가지 혜택**
    - 가. 학기중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한 학기 15학점 인정
      - 한 학기(4개월)를 장기현장실습으로 기업에서 근무하고, 학교에 가지 않아도 15학점(전공선택12학점, 일반선택3학점)을 인정받습니다.
      - PASS/Non-Pass 학점이기때문에 졸업시 학점 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나. 정부대학 IPP실습지원금 월40만원  
월40만원씩 정부가 학교를 통해 제공하는 지원금 40만원이 IPP참여 학생에게 지급됩니다.(정부대학 IPP실습지원금)
    - 다. 기업 IPP실습수당 월80만원  
월80만원씩 IPP기업이 IPP참여학생에게 지급합니다.(기업 IPP실습수당)
    - 라. 한성대 IPP장학금 등록금20%  
대학이 IPP참여학생 해당학기 등록금 20%를 감면해 줍니다.(한성대 IPP장학금)
  - 마. IPP계절학기 수강료 전액 면제**  
IPP사업과 관련한 IPP계절학기 수강일 경우 IPP참여학생의 수강료 전액 면제합니다.
  - 바. 취업역량 강화: 경력사원같은 신입사원 역량을 갖추게 됨**  
대학을 졸업하고 별도의 교육없이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인재가 되므로 졸업후 취업이 용이합니다.
  - 사. 전공 역량 강화: 이론과 실무를 접목하여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가 됨**
    - 학교이론과 실무 현장과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산업현장경험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이 향상 됩니다.
    - 4학년 2학기 IPP참여학생이 기업에서 우수한 인재로 확인되면 학생과 기업합의 하에 정식 근로자로 채용도 가능합니다.  
\*IPP참여학생은 학생신분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한성대학교에서 상해보험을 지원합니다.
- \*단 학기 학생혜택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IPP실습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IPP 학생 설명회 관련 문의사항 | 한성대학교 IPP사업단 (02-760-8050, 8055)

# 생계형 노동이 된 아르바이트



▲ 이제 아르바이트는 생계형 노동이 되어버렸다.

권기영(가천대 1) 씨는 오늘도 학교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주일 꼬박 일해서 버는 돈은 한 달에 고작 79만 2480원. 학자금 대출을 갖고 교통비와 통신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권씨가 카페와 편의점에서 일한지도 벌써 5개월째. 하지만 단 한 번도 주휴시간 근무 등에 대한 추가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

제활동연구 조사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수는 2009년 1천 명으로 작년보다 17만 5천 명이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20대의 근로자 수는 42만 1천 명으로 작년 대비 7만 3천 명이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로 20대 근로자층이 여러 연령층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 고용주의 인식 개선되어야 한다

이처럼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는 생계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처우와 열악한 환경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해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이기원 청년유니온 대학생 팀장은 "아르바이트는 대학생이 정식직장을 갖기 전 일시적으로 하는 일이고, 임금도 적어 아르바이트생을 무시해도 된다는 고용주의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들을 돈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인식 개선을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도록 해

야한다.

### 노동 관련법에 대한 교육도 절실하다

아르바이트도 노동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근로계약서마저도 작성되지 않고 유급휴가, 추가수당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잊혀진 채 넘어가기 일수이다.

1,013명을 대상으로 알바몬에서 실시한 '알바생의 법적권리' 설문조사에 따르면 알바생의 60%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기원 팀장은 "어릴 때부터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권리가 무엇인지의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인상 시급하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다"며 "이러한 임금으로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고 주거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2015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한 달

꼬박 만근했을 시 각종 수당을 합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16만원이다. 민달팽이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거빈곤 청년은 2010년 기준 52만 3천869명으로 전체 청년 중 22.9%를 차지한다. 청년 5명 중 1명은 주거 빈곤층에 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들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은 사립대의 경우 367만 원이다.

### 최저임금위원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총 27명이 참여한다. 공익위원은 정부에서 정하며 그 중 대학 교수가 4명 참가 한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책임감 있는 형태로 재정립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며 "최저임금이 미치는 거대한 사회적 영향력과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투명하지 못한 '밀실 회의'를 책임성이 담보되는 '오픈 회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유진 기자 ly32108@hansung.ac.kr

##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알고하자.

알바몬이 아르바이트생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알바생의 법적 권리'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 대표적인 10개 권리 중 모르는 내용이 있다고 답했다. 대학생의 66.8%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만큼 노동법에 대한 기본 지식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알바생식습을 준비했다.

### 1. 임금 삭감, 특별한 규정 외에는 절대금지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 지급에 의하면 사장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 전액을 직접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액 지급의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 2. 아르바이트생도 쉬는 시간 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에 의하면 사장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장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 3. 열심히 일한 당신 하루는 쉬어라!

아르바이트생이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만일 사장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아르바이트생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휴일근로를 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4. 해고는 한 달 전에 통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이 항목은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해고예고의 방법은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상관없다.

없다. 해고예고를 할 때에는 해고될 날짜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만일 사업주가 당장 내일부터 일을 나오지 말라고 통지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한 달 전에 통지하지 않는다면 사장에게 민법상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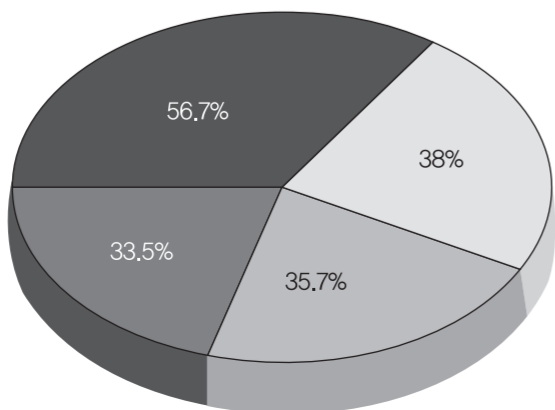
### 5.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수령 대상!

아르바이트생도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아예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 의하면 사장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년 단위 계산 : (일평균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년수 + 1년

노유진 기자 ly32108@hansung.ac.kr

### 알바생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10대 법적 권리



- 매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50%가산 수당을 받을 권리
- 유급 수당
- 주휴 수당

## 정치

###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가 터진지 1년이 지났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

"내가 목도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통과 어떻게 정면으로 마주할 것인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에게 물어보는 이야기다. 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쉽게 답이 나올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까담 없지 않을 눈물이 흘렀다. 내려야 할 정거장이 한참 남았는데,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듯한 눈물에 한참을 얼굴을 가리고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이 상황을 해석해 줄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는 이가 없다. 아니 적다. 모두가 정의를 갈망하고, 목마르게 찾고 있는데, 그 정의를 말이 아닌 현실 속에 구현해내는 집단이 없다. 모두가 이 거대한 부조리 앞에 무기력하게 서 있다. 우린 어디로 가야 할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토론자로 다녀왔다. 어떻게 하면 투표율을 올릴 수 있을까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다. "유권자들은 투표하고 싶은 후보 혹은 이슈가 생기면 자발적으로 투표장으로 나간다. 투표율이 높은 것이 곧 야권이 유리한 것도 아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현재 새누리당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을 통해서 볼 때, 높은 투표율이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깨어있는 시민은 투표를 한다!" 식으로 끊임없이 유권자의 각성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투표하고 싶은 정당, 정책을, 정치인을 만들어라. 유권자들은 자신이 뽑고 싶은 정당, 정치인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투표장으로 달려갈 것이다."

점잖게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찍고 싶은 사람이나 만들어 놓고, 투표율 올리자고 하려며 조금은 따갑게 이야기를 하고 왔다. 하지만 투표하고 싶은 정당, 정책을, 정치인을 만들지 못한 것에 이들 국회의원들만 책임이 있나? 나는 책임이 없다. 답하고 싶지 않다. 정치하게 이야기하자면 책임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좋은 정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라는 질문에는 대답할 말이 마땅찮다. 세월호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 말고,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논평하고 비평하는 것 말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때론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할 상황에 자신을 놓겠다 결심하는 집단, 세력이 있는지라는 질문에도 역시 대답할 말이 마땅찮다.

세월호 참사가 터진 이후로 한 동안 매 주말마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집회가 시청광장에서 열렸고, 수십 만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했다. 하지만 지금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팽목항 풍경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세상을 바꾸자, 세월호를 기억하자. 그래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만들자, 라는 구호만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음을 보았다. 열망이 간절했던 만큼 실망도 격렬하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치란 열정과 균형적 판단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날랜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구멍 뚫는 작업이다. 만약 이 세상에서 불같은 한 것을 이루고자 몇 번이고 되풀이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가능한 것마저도 성취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은 전적으로 옳고 모든 역사적 경험에 비해 증명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이면서 또한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 영웅일 수밖에 없다. 지도자나 영웅은 아니라 해도, 모든 희망이 꺼져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그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오늘 날 아직 남아 있는 가능한 것마저도 성취해 내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제공하려는 것에 비해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고 비열해 보일지라도 이에 좌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 막스 베버가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한 이야기다.

세상을 바꾸자는 총론에서는 실력을 보일지라도, 어떻게라는 각론에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우리에게 그 실력이 있나"라는 질문에 매우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답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리고 그 출발이 '정치의 복원'이어야 한다는 매우 근본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싶다.

정치발전소 김경미 기획실장

New OPEN

## 학술정보관 온라인 이용자 교육

학술정보관 이용 방법이 궁금할 때  
학술정보관을 잘 이용하고 싶을 때

Hansung University Library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온라인이용자교육

■ 구분 : 신입생용 / 재학생용 ( 시간 : 7분 )

**학술정보관 안내**

**자료이용 안내**

**서비스 안내**

■ 온라인 이용자 교육을 이수한 학생만 도서 대출 가능 ( 16학번 부터 적용 )

## 적지 않은, 암기와 기억의 차이



교단에서

이상혁 교수  
(언어교육원)

어린 시절에 '암기' 실력 하나는 끝내준다 는 소리를 들었다. 필자만 들었던 '기억'만은 아닐 것이다. 쓸데없이(?) 고려와 조선의 왕 이름을 순서대로 외우기도 하고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세계 여러 나라의 수도를 거침없이 되뇌기도 하면서 그것이 자신만의 능력인 양 뿌듯해 했었다. 영어 사전을 거의 통째로 외우겠다는 과욕을 부린 일도 그런 '객기'의 발로였을 것이다.

물론 무엇을 암기하는 것이 마냥 불필요한 행위는 아니다. 자신의 지식을 넓히고 더 심화된 지적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학습 행위는 일차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뇌 속엔 여전히 남아 있는 암기 내용은 유용하기까지 하다. 외우려고 노력한 시간적 비용에 비해 그 내용의 가치가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암기'는 대체로 '기억'보다는 그 내용이 단편적이고 비생산적일 때가 많다. 그 점에서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자신의 의식 속

에 오롯이 간직하는 '기억'이 '암기'보다 한 수 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구구단을 암기하고 어려운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과 8·15 해방, 6·25 전쟁, 5·18 광주민중화 운동,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그 백락의 결이 다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대체로 암기는 나 개인과 연관된 것으로 때로는 수동적이고 단절적이며 기계적이기까지 하다. 망각의 양도 많고 그 정도도 크다. 그 반면에서 기억의 영역은 나와 연관된 것인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것인 경계적이고 능동적이다. 그래서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도모하는 데 좋은 지적 활동의 전제가 될 수 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이 '암기'한 것보다 '기억'한 것을 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계적인 '암기'에 집착하며 파편적인 추억만을 그

것도 혼자 흥얼거리고 있음을 목도한다. 집단의 기억과 지성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이성의 함양은 운데 간데없다. 정작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망각하고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그 무엇에 자신을 묶어매고 숭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암기만'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기억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시절 짜장면 값과 버스 요금이 얼마였는지 줄줄 외우는 것도 즐거운 과거 되돌아보기도. 그러나 이것들이 당시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였으며 그 기억의 저편을 통해 우리의 현재는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 그리고 더 의미미하고 진보한 미래를 위해 합리적 이성의 주체라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때다. "사람은 왜 '대중' 합리적인가?" 라는 냉소적 물음에 대한 성찰은 '기억'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 결코 잊지 않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억'은 '역사'의 현재형이기 때문이다.

## · 사 설 ·

### 부러우면 지금 당장 시작하자!

올해 국내 대학 사회에서의 최고 화두는 단연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평가이다.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입학 정원 급감을 대비하기 위해 대학을 A,B,C,D,E 5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가 좋지 않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정원을 줄이거나 재정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 평가 결과가 6월초에 발표될 예정으로 여러 대학들이 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조개혁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들은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했다. 평가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이다. 이 과정에 투입된 노력은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과 교육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느 평가보다도 큰 파급효과를 갖는 구조개혁평가를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해야 하는 대학들 입장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 건양대학교에서 개최된 제8차 ACE 포럼에서는 학

부교육선도대학들의 우수한 교육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PBL(문제중심 학습), MOOC(온라인 공개수업), Flipped Learning(거꾸로 학습법)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수법 적용 사례가 눈에 띄었고, 융합 교육을 위한 노력과 함께 수준 높은 LMS(학습관리시스템)를 볼 수 있었다. 저렇게 좋은 시스템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수법으로 학습 받는 학생들은 참으로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러움과 위기감을 동시에 느꼈다.

많은 대학들이 중장기 발전 계획에 특성화와 질 높은 교육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최근 우리 학교도 IPP 사업 선정, ACE 사업 지원 등 교육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학교가 진정한 교육 중심 대학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대내외 상황이 어렵더라도 교육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구성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달려가고 있는 대학들을 보며 부러워만 하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 · 삼 학 송 ·

### 쇠사슬, 반복되는 뉴스와 원고지

밀려있는 과제를 뒤로한 채 모니터 불빛에 바짝 타들어가며 기사를 쓰고 있을 때, 어린 후배 기자들을 다그치며 기사를 독촉할 때, 취재가 잘 풀리지 않아 매번 마감을 고비를 넘듯 넘어갈 때 생각했다. 마지막 사실을 쓸 때면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후련할 것이라고. 편집국장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훌훌 털고

문사 전화기가 뜨거워지고, 취재를 거절당해 기사를 얻어야 하는 위기가 올 때면, 기자들의 손목과 발목에 굵은 쇠사슬이 감겨졌다. 열심히 발로 뛸 필요도 날카로운 펜촉을 세울 필요도 없다고 속삭이는 관성의 쇠사슬은 꽤나 무거웠다.

그러나 매일이 그렇게 다그쳐야 하나? 라는 생각을 새벽 지워내며 학보사 기자라는 편집국장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이름을 되새기며. 그렇게 기사를 쓰고 조판 작업에 임했다. 그 순간만큼은 온 신경을 신문에만 전념했기에 나의 정력을 온전히 쏟아 부었기에 후회를 할 틈이 없었다. 하지만 신문 지면에 찍힌 링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언제나 고민했다. 발행을 위한 신문을 만든 것은 아닌지, 더 편한 현실에 타협을 한 것은 아닌지를 월요일에 발행된 신문을 보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고민했다.

이제 이러한 고민을 차기 편집국장과 후배 기자들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몇 마디 더 남기고 싶다. 우리의 손목과 발목을 무겁게 할 관성의 쇠사슬을 떨쳐내길. 반복되는 뉴스에 절대 편하게 가지 않길. 채우지 못한 미완성의 원고지를 뺏겨지지 않길. 그리고 신문사를 떠나서도 언제나 함께 고민할 내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발행된 기사에 대한 문제제기로 신

<한재원 편집국장>

## 기사를 쓰기에 씹쓸한 현실, 만평을 그린다.



기자수첩

한지선 기자  
(매디 2)

서울여자대학교는 총학생회가 학교 축제를 앞두고 미관상의 이유로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 현수막을 제거해 논란이 되었다. 서울여대 학보사는 이와 관련하여 학보 1면에 '서울여대 졸업생 143인의 성명서' 전문을 실어 했으나 2면에는 서울여대 학보사가 주간교수와의 마찰로 지난 26일자 606호 학보 1면을 백지 발행 감행했다. 학보 청소노동자 파업과 관련하여 '노사 첫 대화, 사태 해결 신호탄 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담고, 사실에는 현수막을 철거한 총학생회의 태도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서울여대 학보사의 백지보도를 보고 안타까웠다. 자유롭게 기사를 쓰기에 현실이 너무도 씹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

문이다. 갓 정기자가 되었을 때 9월 1일 개강호인 한성대 신문 492호 1면 탐기사도 백지 발행된 바 있다. 학보사의 백지는 많은 것을 전한다. 첫째 편집권의 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로 학보사 기자들이 편집권 침해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학보사에 몰아칠 후폭풍을 감당할 정도로 용기가 있음을 말한다.

이때 처음 만평을 그렸다. 1면에서 못다 한 말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씹!'이란 만평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결과에 대해 숨겨야 하는 정부와 학교를 고발하는 만평으로 대신할 수 있었다. 이렇게라도 1면 탐기사에 대한 못다 한 말을 전해 공급

해서 근질근질했을 독자들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말하고 싶었다. 대학, 사회, 문화의 시사적인 문제나 인물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싶었다. '대학입니다!'란 만평으로 대학을 평가의 잣대로만 바라보는 교육부를, '모두의 회피 때문입니다'라는 만평으로 본교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회피하는 교육부와 대학구성원을 꼬집었다.

이렇게 기사에서는 상상도 못할 반전과 촌철살인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매력을 알게 된 나는 취재부 기자이자 만평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기사로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만평을 그린다.

## '아는 것은 아름답다(알음아름)'



낙산에 올라

정희연  
(행정학과 4)

2013년 미국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86%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14%에 달하는 약 7억 명이 글을 읽고 쓰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받을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UN의 GEFI(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세계 시민교육 우선 구상)의 정보에 따르면,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전 세계의 빈곤을 퇴치할 수 있고 아동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강제로 이루어지는 아동의 결혼 역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문해율이 97%에 달하기 때문에, 문맹이라는 상황이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알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UN Academic Impact(이하 UNAI) ASPIRE 한성대학교 지부는 문맹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전세계 약 7억 명의 비문해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총 이틀 간 문맹퇴치 캠페인 '알음아름'을 기획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문맹 체험으로, 문맹률이 높은 언어(아랍어, 네덜어, 스와힐리어 등)로 음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참가자에게 선택하게 했다. 그러나 많은 참가자들은 음료의 이름이 낯선 언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읽지 못하여 음료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문맹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였다. 그러나 실제 문맹은 이보다 더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유발한다. 두 번째는 문맹 퇴치를 위한 디자인 제품인 패치와 예코백 판매였다. 판매로 모아진 수익금은 UNICEF의 문맹퇴치 프로그램 및 네 팔 긴급구호 사업에 후원하였다. 마지막 활동은 메시지존 활동으로, 앞선 문맹 체험을 통하여 참가자들이 느낀 점을 종이에 적어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

천년 개발목표)의 2번 목표인 '보편적 초등 교육의 달성'을 나타내는 메시지존(현수막)에 붙이도록 했다. 많은 참가자들은 메시지존에 '문맹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어 정말 의미있었다.', '전 세계 문맹률이 하루빨리 0%가 되길 바란다.' 등의 메시지를 남겨 주었다.

우리는 매우 높은 문해율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실정 인식하지 못했던 '문맹'에 대해서 고민해보아야 한다. 전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 중 문맹 문제는 인간다운 삶, 기본권에 해당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인 모두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날을 위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구촌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알음아름' 캠페인이 이러한 바람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 한 학기를 마치며



독자칼럼

이수빈  
(무역 2)

처음 독자 칼럼단으로 뽑히게 되었을 때, 학교에서 의미 있는 생활을 보내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기뻐하며 첫 원고를 써내려가던 것이 어찌만 같은데 벌써 한 학기를 마무리 해가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한 해는 신입생으로서 동기들과 선배들과 친해지기 바빴고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바빴다면 올해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1학년 때는 학교생활이 재밌었고 다른 준비를 할 생각자체가 안 들었는데 이번 학기에 는 생각보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많이 하면서 보낸 것 같아 뿌듯합니다. 학교에서 봉사단, 칼럼단 등의 활동을 하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봉사를 하였는데 시간 내워서 고맙다며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 덕에 뿌듯하기도 했고 현재 우리 학교는 어떠한 상황

에 있는지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학교에는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내 관심사에 맞는 활동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미래를 위한 준비는 외부에서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 했던 봉사단과 칼럼단 역시 학교에서 찾을 수 있었고 저는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가졌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멀리서 찾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학년 때는 마냥 놀 생각으로 가득 찼던 방학이었는데 2학년이 되니 이제는 취업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생각이 많아집니다. 우선 저의 작은 계획은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소유의 자동차가 있어 운전은 직접

할 수 있을 때 때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위의 많은 친구들이 운전면허증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렌터카를 이용해 여행을 다니는 걸 보고 이번 여름방학에는 꼭 운전면허증을 따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계획은 영어 회화 실력을 늘리는 것과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좋은 기회를 통해 호주에 머물게 되었는데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가족들과 많은 생활 영어를 쓰고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호주의 땅을 마음껏 밟고 다니며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에게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번 방학에는 타지에 머물면서 직접 부딪히며 경험하고 혼자서도 생활하고 여행을 하는 법을 배워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고 싶습니다.

## 낙산만평

한지선(매디 2)



총학

어어도 돼..?

# 아주 사적인 시간 김승진 선장을 만나다

‘아주 사적인 시간’은 인터뷰 대상 선정부터 컨택까지 기자의 개인적 취향과 사심이 가득 담긴 인터뷰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 바다의 슈퍼마리오, 아라파니호와 함께 희망을 향해하다



본고 미술과 출신인 김승진 선장. 그의 ‘희망항해’는 무려 4만1,900km의 바닷길을 가로질렀다. 김 선장은 적도를 지나 피지, 칠레 케이프 혼,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등을 지나 2009일 만에 왜목항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단독·무기항·무원조 요트 세계횡단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

‘희망항해’를 계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무기항 세계일주는 2001년도부터 키워온 꿈이었어요. 2010년도에 기항 세계일주로 경험을 쌓았죠. 2013년도

에 카리브해 대서양에 아라파니호를 구입해서 남태평양에서 북태평양까지 오면서 무기항 세계일주를 하자는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항해를 준비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주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실어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희망항해 프로젝트를 준비했죠. 그때부터 ‘희망항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항해를 할 때 어떤 부분이 힘들었나요?

처음 출발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출발한지 15일 정도 됐을 때 돛을 조절하는 장치가 부러졌어요. 이때 너무 놀랐죠. 수리를 했지만 2주 후에 다시 부러졌어요. 이 밖에도 풍향풍속기, 냉방고, 가시테이머, 엔진 등이 연이어 고장났어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머릿속에 “김승진 방식으로 이겨내!”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항해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희망도 생각났죠. 그 응원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항해를 하다가 상어를 만나셨다면 사요?

호주와 피지의 중간정도 되는 적도 지역이었어요. 40도가 넘는 띄약밖에 무풍이었죠. 항해가 불가능했죠. 돛을 내리고 쉬고 있는데 요트 주변으로 수 백 마리의 돌고래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가까이로는 안 오더라고요. 가까이서 돌고래들을 촬영하고 싶어서 수영복을 입고 셀카봉을 가져갔죠. 가까이 가니까 돌고래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조금씩

쫓아가다 보니까 배에서 60m 정도 떨어졌어요.

촬영이 다 됐겠다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상어가 스윽하고 나타났어요. 섬뜩했죠. 배의 위치를 확인하니까 너무 멀리까지 온 거예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상어가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서 대자로 공격자세를 취했죠. 그리고 척! 하고 셀카봉으로 위협했어요. 그러자 상어가 뒤로 가더라고요. 그때 열심히 도망갔죠. 도망가는 걸 보고 또 쫓아오더라고요. 가까이 올 때 다시 공격자세를 취했죠. 그렇게 네차례 정도 했을까. 마지막에는 가까이 오갈래 셀카봉으로 콧잔등을 탁하고 쳤어요. 그러더니 조금 멀리 가더라고요. 그때 후다닥 도망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2009일 동안 동거동락했던 ‘아라파니 호’는 김승진 선장님께 어떤 의미 인가요?

동료 그리고 애인같은 존재죠. 태풍이 불어왔을 때도 저는 요트 안에

있었어요. 요트가 잘못되면 구해줄 사람이 나뉘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아라파니는 순 우리말로 ‘아라’는 바다, ‘파니’는 달팽이를 뜻해요. 달팽이는 번식기 때 멀리 이동한다고 해요. 느리지만 천천히. 저는 요트가 이런 달팽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본고 재학 시절이 궁금합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았고 사람과 여행을 좋아했어요. 2학년 때는 스킨스쿠버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4학년 때는 전국 대학연합회 회장도 했어요. 그때부터 탐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24살에는 한강 350km와 일본 시나노강 380km를 수영으로 종단했죠. 그 밖의 모험활동도 많이 기획을 했어요. 이밖에도 양쯔강 탐사나 히말라야 탐구라봉 등정도 했었어요.

탐험가로서 김승진 선장님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에게는 총 세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트학교를 설립해 요트인구의 증가와 요트를 보급하는 것이에요. 해외에는 요트와 관련된 과목이 12개에서 17개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 입문자에게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레이싱 팀을 결성해 대한민국 요트의 현 주소를 세계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예요. 마지막으로요는 요트를 더 많은 사람들이 경

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항해를 하면서 기항세계일주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싶어요.

김 선장은 인터뷰를 마친 후 한성대 학우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며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핑계도 대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는 아라파니호와 같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 번 한 일은 끝까지 한다!”는 바다의 슈퍼마리오 김승진 선장과 바다달팽이 아라파니호의 항해는 진정한 열정과 용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최혜정 기자 hipo96@hansung.ac.kr



### 이제 만나러 갑니다

우리 일상에서 항상 곁에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던 그들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알고 싶은 본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 이레라 “저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인지 한국에 빨리 익숙해 진 것 같아요”

· 이름: 이레라 (Li Valeriya)  
· 국적: 카자흐스탄  
· 나이: 23살  
· 학과: 무역학과



카자흐스탄에서 온 이레라 학생은 카자흐스탄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다. 본고에서 공부중인 그녀, 부모님께 이어받은 한국인의 피가 그녀를 한국으로 이끈 것은 아닐까.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데 힘들지는 않았나요?

카자흐스탄에는 고려인이라 불리는 한국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네 시장에서 김치도 팔고, 순대도 팔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을 해 주셔서 그런지 한국에 적응하기 쉬웠어요. 제 몸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더 빨리 익숙해 질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의 사계절은 어떤가요?

여름에 끈적거리고 습도 너무 높아서 힘들어요.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만 있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겨울은 우리 카자흐스탄보다 따뜻해서 좋았어요.

한국어는 언제부터 배웠나요?

부모님은 카자흐스탄 국적을 가진 한국인은 맞지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같은 말 밖에 못하셔요. 그리고 친구들은 한국 아이들을 좋아해서 한국말을 많이 알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아주대어 학당에서 한국어를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바다! 동해바다에 간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카자흐스탄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 바다에 갔어요. 동해바다에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 엄마가 한국에 오시면 같이 제주도랑 제주도 가고 동해바다도 가려고 해요.

학교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는 무역학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복수전공으로 애니메이션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제도 많고 해야 할 공부도 많아요. 거기다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봉사활동도 했었고, 영어공부도 하고 있어요. 바빠서 그런지 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어요.

본고를 졸업한 이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지내실건가요?

음, 일단은 한성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직을 하고 싶어요. 취직해서 경험을 쌓고, 다른 나라에 가서 또 경험해보고 싶어요.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바쁘고 알찬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는 그녀. 하지만 친구가 없어 속상해하던 그녀였다. 그녀와 동갑인 기자는 인터뷰를 계기로 그녀와 친구가 되었다.

한지선 기자 mongrock@hansung.ac.kr

### THE HANSUNGS

글: 그림 최혜정(의대 2)



하지만 그 전에 기말고사.. 모두 화이팅하고 2학기때 봐요

# 한성대신문 제9회 사진공모전

## 최우수작



땀감을 이고 가는 아이들

김상훈(정시 4)

### 수상소감

####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기를



김상훈(정시 4)

저는 KOICA 해외봉사단을 통해 2년 2개월 동안 아프리카 동쪽 탄자니아라는 나라의 한 고등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탄자니아에서의 삶은 10년, 20년이 지나도 회상할 수 있었으면 해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 역시 탄자니아에 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작년 12월, 탄자니아 탕가의 한 마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산간지대에 있어서 그런지 시원한 바람과 화창한 날씨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또한 시골 마을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너무 해맑은 미소와 함께 우리를 반겨주어 더욱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애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제의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의 모습은 어제와 사뭇 달랐습니다. 그렇게 해맑게 웃어주던 아이들이 무거운 땀감을 지고 1시간도 넘게 걸어간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웃어주던 아이들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만이 들 뿐이었습니다. 왜 누구보다 착하고 순수한 아이들이 저 무거운 땀감을 지고 걸어가야 할까요?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탄자니아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오토바이 운전수, 길거리 장수, 일용직 노동자 등의 일을 하며 한 끼 식사만 간신히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당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꿈을 심어 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계의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지금보다는 덜 가난하고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사진이 눈에 밟힙니다. 하루빨리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웃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 사진을 뽑아주신 한성대 신문 관계자 여러분과 한성대 신문을 구독해주시는 '서울의 중심' 한성대학교 재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ps: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세계 시민 교육에 앞장서는 UNAI 한성 ASPIRE 파이팅!

### 수상소감

#### 머뭇, 그리고 마지막



오기석(한국어문 1)

안녕하세요. 이번 사진 공모전에서 가작에 당선된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 15학번 오기석입니다. 저는 영화감독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촬영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과 관련된 동아리에 가입했고, MT에 가서 사진 담당도 맡았습니다. 제 꿈에 열중하다 보니, 선배님들과 동기들로부터 한성대신문 사진 공모전에 참가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수상의 기쁨을 한국어문학부 선배님들과 동기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마지막'입니다. 촬영할 당시 폭우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대지의 일부는 빗물에 젖어 있었죠. 물기에 젖은 땅은 매우 진하잖아요? 그 특유의 진한 빛과 회색 빛 먹구름으로 변색된 명암, 그리고 주차장에 덩그러니 놓인 차 두 대가 저에게 주는 인상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꿔가며 셔터를 여러 번 눌렀었죠. 그런데 생각만큼 좋은 사진이 나오지 않았고 무슨 이야기를 담아낼지도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차장 근처에 육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구도를 잡아 촬영하니 이 장소가 저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통해 '마지막'이라는 추상적 요소를 담고자 했습니다. 사진 속 차량 두 대는 폭풍우를 이겨 낸 듯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드리운 먹구름은 부정적인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암시의 실현은 주차장이라는 장소의 속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주차장은 차들이 잠시 머무는 곳일 뿐 계속 머무는 장소는 아닙니다. 두 차량의 만남은 곧 마지막이 되겠지요.

촬영 뒷이야기를 하자면, 사진을 찍었을 때가 수능 끝나고 친구들과 하는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을 때였습니다. 마치 이 사진 속 이야기가 그때 저와 친구들의 상황을 대변한 셈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졸업생인 저와 동기들은 고등학교를 떠나겠지만, 새내기 친구들이 졸업생들의 공백을 매워줄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니깐요.

## 가작



마지막

오기석(한국어문 1)

# 아쉬운 작품들



영웅수업

이진영(정통 2)



허우룩

김진아(시각영상 3)



송성우(영어영문 3)



이우민(부동산 4)



거지와소

김민지(의매 4)

## 심사평

Photographer  
최창익(1962~)

**<이력사항>**  
티(TiH) 스튜디오 대표  
사)한국광고사진가협회 회원 / 부회장  
한국사진학회 회원  
서울 AP 클럽 회원  
서울예술대학교 사진과 초빙교수

**<수상경력>**  
조일광고 본상 및 대상 (1989/1990)  
대한민국광고대상 금상 (1997)  
대한민국 유공광고인 국무 총리상 (2007)  
한국광고대회 국제광고 컨퍼런스 집행위원회 심의 (2009~2012)



# 한성인의 남다른 감각을 엿볼 수 있었다

상상력 인큐베이터, 서울의 센터 한성대를 비전으로 젊음을 만끽하며 학업에 전념하는 한성인들의 멋진 작품들을 심사하게 된 광고사진가 최창익입니다.

총 123작품을 심사하며 한성인의 다양한 시각과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심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제가 심사위원장을 맡고 3인의 사진가를 심사위원으로 모셔 매우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였음을 전해드립니다. 최우수작과 가장 외에도 우수한 작품이 많아 심사가 어려웠습니다. 심사기준은 컨셉, 빛의 활용, 사진의 구도, 컬러, 연출입니다. 심사기준 외에도 작품을 출품한 작가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최우수작으로 김상훈(정시 4) 학생의 '빨감을 이고 가는 아이들'을 선정했습니다. 이 작품은 앞서 언급한 심사기준에 훌륭하게 부합하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현실을 담아 다큐멘터리의 기록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살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연출과 순간의 포착이 자연스러웠고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한창 놀고 싶은 아이들의 욕망이 파란 하늘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작렬하는 태양 빛의 그림자와 무거운 짐 보따리에 얼굴이 가려 보일 듯 말 듯 한 표정 역시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되어 최우수작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가작으로 선정된 오기석(한국어문 1) 학생의 '마지막' 또한 최우수작에 버금가는 멋진 시각의 작품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을 이 공간에서 작가는 흠여지고 버려진 낙엽과 추자청의 텅 빈 공간 속에서 외로이 남겨져 있는 두 대의 차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과감한 구도로 차분히 담아냈습니다. 작품 속 컬러는 역시 매우 신선한

다. 양상한 나무 가지와 넓은 주차장에 외로이 남아있는 두 대의 차. 주차장의 속성을 시간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 돋보입니다.

최우수작과 가장 외에도 좋은 작품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아쉬웠던 작품을 몇 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진영(정통 2) 학생의 '영웅수업'도 멋진 작품입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빛나는 아이의 빨간 슈퍼맨 망토가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거친 옷덩이의 철로와 양상한 나뭇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이는 슈퍼맨 망토를 두른 아이와 아이의 손을 다정히 잡아 준 아빠와 대조됩니다. 아쉬운 것은 구도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좀 더 넓고 과감하게 표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납니다.

김진아(시각영상 3) 학생의 '허우룩'은 '마음이 텅 빈 것' 같이 허전하고 서운 하다라는 순 우리말 허우룩이 이 작품 속에 녹아있습니다. 저 멀리 맑게 흐린 산세의 광선과 그늘진 벤치의 조화가 허우룩의 의미를 잘 전달합니다. 하지만 좀 더 명확히 '허전함'을 담아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납니다. 삼각대를 설치하고 좀 더 느린 셔터를 사용하여 물의 흐름과 나뭇가지의 움직임이 담겨 있다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송성우(영어영문 3) 학생의 작품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있어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탈색된 기둥의 컬러가 매우 인상적이고 그 기둥에 묶여지다 만 밧줄의 컬러와 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왜 밧줄은 묶여지다 말았을까?'라는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밧줄의 오염 또한 밧줄이 지나온 오랜 시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작가가 전달하고자 한 '무엇'을 정확히 추론하기가 힘들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주변의 상황과 연계해 이미지를 담아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피사체

에서 오는 느낌을 클로즈업해 과감하게 접근 한 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우민(부동산 4) 학생의 작품은 회화적 감성이 돋보이는 멋진 작품입니다. 양상한 나뭇가지위에 구름이 춤을 추듯 회오리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흐린 날 촬영해 사진에 힘이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나무가 너무 양상한 가운데 흐린 날의 영향으로 구름의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자연 속의 나뭇가지와 구름의 형상을 이미지로 담아내는 작가의 감성에 박수를 보냅니다.

김민지(의매 4) 학생의 '거지와 소'는 인도여행을 하며 촬영한 사진 같은데요. 컨셉도 분명하고 비주얼이 흥미롭습니다. 프랑스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사진을 보는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는 편안한 스냅사진과 같은 느낌으로 인간의 삶을 잔잔하게 담아냅니다. 하지만 구도가 너무 정리되지 않아 아쉬움이 납니다. 버려진 쓰레기와 오물 속에서도 소와 함께 평화로이 휴식을 취하는 그들의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담아내었으면 합니다.

사진은 빛으로 만들어내는 예술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피사체를 빛을 통해 보고, 느끼고, 담아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강해지거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적(Object)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셔터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촬영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따라 피사체를 카메라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창작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늘 행복을 안겨줍니다. 저의 심사평과 조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멋진 사진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학술 기획연재

# 부재와 억압

〈부재와 억압의 역사〉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역사에 초점을 맞춘 학술 기획연재다. 역사 속에서 발생한 부재와 억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러한 부재와 억압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주〉

### <연재 기획>

- ① 해방 후 반민특위 와해와 친일파 청산 의지의 부재
- ② 남녀는 과연 천리 앞에 평등 했나
- ③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들 그리고 부러진 교편
- ④ 종교의 억압 - 하느님은 어디에 계신가
- ⑤ 묶여버린 펜, 빼앗긴 권리, 언론의 억압

## ⑤ 묶여버린 펜, 빼앗긴 권리, 언론의 억압

### 일제시대를 거치며 민족언론은 친일언론으로 물들고

“언로(言路)가 막히면 민란(民亂)이 일어난다”

-윤곡 이이

#### 일본의 침략과 언론검열의 시작

1883년 10월에 창간된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가 발간된 이후 1945년 해방 전까지 조선의 언론을 장악한 일본은 어떤 형태로 언론통제와 탄압을 실행하였을까.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전락시키기 이전부터 신문을 검열해 기사의 삭제와 신문 발행의 정지를 명령했다. 1904년 러일전쟁 이후에는 모든 신문의 사전검열을 강요했다. 일본을 비판하거나 한국침략에 방해되는 내용의 기사가 있을 경우에는 삭제시키거나 정간처분을 강행했다.

일본은 조선의 언론을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1907년 7월 24일 법률 제1호로 ‘신문지법’을 공포했다. 신문지법은 일제 식민지 시기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까지도 이어진 전형적인 언론통제용 약법이다. 이러한 신문지법은 신문 창간시 허가가 필요하며(제1조), 신문지로서 질서를 방해할 시 신문의 발매를 금지하고 압수해 발행정지 또는 발행금지 처분을 가할 것(제21조) 내용이다.

#### 3대 민간지 출현과 문화정치의 실제

일제는 병합 후 신문지법을 이용하여 애국 계몽 운동의 민간지들을 전부 폐간하거나 허용지로 변모시켰다. 〈황성신문〉, 〈독립신문〉은 폐간되고 〈대한매일신보〉는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로 제호를 변경하여 발행되었다.

3-1 운동 당시 일제의 탄압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하신문이 발간되었다. 3-1 운동의 주역들은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3-1 운동 직후 일제는 3-1 운동의 열기를 꺾고자 1919년 9월에 사이토 총독이 ‘문화정치’를 발표했다. 제한적이지만 언론의 자유를 허용했다. 이를 배경으로 민간 3지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이러한 조치는 ‘문화정치’로 식민지 언론 탄압의 심화로 인해 악화된 민심을 완화시키고 민족 해방 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한 속셈이었다. 일제는 민간 언론이 그들의 통치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2천만 민족의 대표 기관으로서 민



▲ 일장기가 말소된 손기정 선수의 사진. 다섯수레 출판, 『한국언론 바로보기 100년』

중들이 이를 신뢰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정간과 압수 등의 행정처분을 동원해 일제의 입맛에 맞게 민중 언론을 길들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정간을 푸는 조건으로 기자의 해고를 요구함으로써 기자와 경영주 간의 관계를 왜곡시켜 언론을 일제의 동맹자로 양성하는 것이다. 결국 일제가 조선인에게 허가한 표현의 자유는 일제 식민 통치의 인정과 주어진 제한 범위에서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 변질되어 가는 민중 언론

조선의 민간 언론은 1924년에 들어서면서 〈시사일보〉를 계승한 〈시대일보〉(이후 〈중앙일보〉로 계승),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3대 신문 중심의 체제로 재정립한다. 그러나 민간 3대 신문 모두 민족지임을 주장하면서도 일제의 여러 차례 압수와 정간 등으로 인해 온순한 언론의 길로 들어서고 만다.

대표적으로 〈동아일보〉는 장문 사설인 ‘민족적 경륜’을 실어 항일 운동에 파문을 일으켜 민족 언론의 변질을 드러냈다. 이 사건의 시발점인 ‘민족적 경륜’은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 운동의 무모함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체제 아래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자치 운동을 주장했다. 또한 정치적 결사 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정치적 색채를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동아일보〉가 주장하는 자치 운동은 독립은 미뤄두고 일본의 합병 정신을 받아들여 내정 독립을 하자는 것이다.

〈조선일보〉 또한 ‘조선과 노국과의 정치적 관계’라는 사실이 문제시되어 제3차 무기 정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사회 정간을 푸는 조건으로 기자의 해고하는 등 민중 언론으로서의 논조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 모욕적인 친일 언론

끊임없는 탄압으로 인해 논조나 기사와 관련해 정치적 사상이 많이 약해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결국 민족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이는 1936년 8월 일장기 말소 사건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조선 민족의 표현 기관’으로서의 자 격을 박탈당한 계기가 된 일장기 말소 사건은 〈동아일보〉가 1936년 8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 올림픽 대회 마라톤 부문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유니폼에 부착된 일장기를 제거한 사진을 실어 무기 정간을 당한 것을 말한다. 이는 〈동아일보〉가 279일이라는 최장기 정간 처분을 받고 사장 송진우를 포함한 편집국장 설의식, 사회부장 현진근 등 13명이 사직한 언론계의 최대 수난 사건인 것이다.

그러나 일장기 말소 사건은 또 하나의 민족지인 〈조선중앙일보〉가 8월 13일에 〈동아일보〉보다 먼저 게재했다. 하지만 총독부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이후 〈동아일보〉 기자들이 경영진에 알리지 않고 일장기를 말소한 사진을 실자 검열된 것이다. 이로 인해 〈조선중앙일보〉는 자진 휴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간

되고 말았다. 이는 그 당시 〈조선중앙일보〉가 진보적이며 강한 논조로 민족 언론을 지키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동아일보〉의 경영진은 이 사건은 회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기자들이 저지른 몰지각한 행위라고 총독부에 해명했다. 이로 인해 〈동아일보〉는 9개월의 정간 끝에 신문을 겨우 다시 발행함으로써 친일 언론 대열에 합류했다.

#### 이들은 왜 친일 언론으로 변질되었는가

1920년대에는 민중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적극적인 투쟁을 하던 민간신문은 왜 1930년대 이후로 저항이 점차 약해지면서 친일 언론으로 논조가 바뀌었던 것일까. 이는 당시의 언론이 일제의 철저한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없었다. 3대 민간지는 매년 수십 건의 기사가 압수처분 당했고 언론인 이 구속당하기 일췌였다. 이에 따라 신문의 논조가 현저하게 위축된 것이다.

또한 언론이 초기에는 민족 대변 기관으로 사명감을 갖고 출발했지만 경영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현실에 부딪하자 상업성에 치우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해지면서 본래의 사명조차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즉 생존을 위한 타협을 선택해 언론 스스로 펜을 묶어버린 것이다.

오혜진 기자 dhgplw0424@hansung.ac.kr



## ‘장녀’가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하나도 둘도 아닌 셋째이다. 인기 육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고 있는 삼둥이들. 첫째인 대한이는 듣직하고 둘째인 민국은 애교가 많으며 셋째인 만세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런데 이들과는 형제, 자매가 여러 명 있는 집안에서 첫째로 태어난 아이가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이 다른 형제, 자매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영국 에섹스대학(University of Essex) 사회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장녀가 동생보다 통계적으로 더 야망이 크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독일

총리 알케라 메르켈,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미국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유명 팝가수 비욘세, 해리포터작가 J.K 롤링,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 셰릴 샌드버그 등 성공한 여성들의 특징이 첫째로 태어난 여자아이라는 것이다. 연구팀은 1,503명의 형제자매와 3,532명의 개인 학업성취도 및 미래에 대한 목표와 열망 정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첫째는 동생들보다 7%포인트 더 교육에 열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녀가 장남보다 13%포인트 더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형제, 자매 사이의 나이차가 클수록 더 뚜렷한 능력의 차

이를 보였다.

연구를 이끈 Feifei Bu 박사는 “부모들이 자녀의 성별이나 순서와 관계없이 자녀를 평등하게 키우려 한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첫째 아이가 교육상 훨씬 이득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형제, 자매의 성별이나 가족의 규모, 그리고 쌍둥이인지 아닌지 등의 조건은 이들의 학업성취 및 훗날 삶의 질과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연구를 이끈 Feifei Bu 박사 또한 장녀이다.

오혜진 기자 dhgplw0424@hansung.ac.kr

## 美生 여걸들의 이야기

### 『태교신기』와 이사주당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했던 것 중의 하나는 자식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이었다. 때문에 태교가 여성의 부덕으로 강조되어 조선시대 사가여성들은 물론이고 왕실 여성들도 태교를 실행을 했다. 이는 환갑을 넘긴 62세였다. 사주당은 임신하면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고 옛사람의 태교법에 따라 실천했다. 조선후기에 『태교신기胎教新記』를 지어 태교의 중요성을 알린 여성이 이사주당李師朱堂(1739~1821)이다.

1739년(영조 15)에 청주에서 태어난 이사주당은 출가하기 전부터 이미 호서지방에서 군자다운 품모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딸의 재주와 품성을 익히 알아차린 아버지 이상식은 “옛날 유명한 선비의 어머니 치고 글 못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사주당은 22살이나 연상인 유한규(1718-1783)와 혼인하여 슬하에 1남 3녀를 낳았다. 유한규는 “구합총서(閩閩叢書)의 저자인 이빙허각의 외삼촌이다.

#### 학교 교육 10년 보다 태교 열 달이 더 낫다

『태교신기』는 사주당이 1800년에 한문으로 지은 태교 지침서이다. 이 책을 쓸 무렵 사주당의 나이는 환갑을 넘긴 62세였다. 사주당은 이 책을 지은 지 20여 년이 지나 막내딸이 갖고 있던 상자 속에서 다시 발견하자 이 책을 그냥 없앨 수 없어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완성된 책으로 만들었다. 이것 이 독자들을 위해 다시 재편집된 것은 그녀의 아들인 유희에 의해서였다. 1801년(순조 1)에 아들 유희가 어머니인 사주당의 글을 10편으로 나누어 주를 달고 우리말로 해석하였다. 오늘날 전해져 오는 『태교신기』는 유희의 재편집본이다.

『태교신기』는 여성들에게 태교를 권장하기 위한 교육지침서였다. 사주당은 평생 자식 교육을 제일의 관심사로 여겼다. 임종 직전에 자신의 모든 저술을 불태워 없애면서도 『태교신기』만은 남겨두었다. 집안의 여성들이

반드시 읽어보아야 될 책이라 생각한 것이다.

사주당은 태교가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태교를 이론으로만 다루지 않고 몸소 임신 중에 그대로 실천하는 실험을 했다. 그녀 역시 태교의 결과에 대해 만족했고, 태교가 주는 이로움을 의심없이 믿었다. 근대 역사학자 위당 정인보는 『태교신기』를 평가하면서 유전자를 온전케 보존하기 위해서는 약물치로나 식이요법에 비해 태교가 훨씬 나은 것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사주당이 『태교신기』를 통해 주장한 “스승의 가르침 10년이 어머니의 배속 교육 10개월만 못하고, 어머니의 10개월 교육이 아버지가 잉태시키는 하루를 삼가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말은 현대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귀담아 들을 내용이다.

정성희

실학박물관 책임학예사

# 비싼 락페스티벌은 그만 이젠 라이브 공연을 저렴하게 즐겨라!

뜨거운 무대를 즐길 여름이 왔다. 매년 이맘쯤엔 락 페스티벌(이하 락페), 재즈 페스티벌 등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음악 축제가 열린다. 라인업에 좋아하는 밴드가 있으면 가슴이 벅차오르지만 곧 심만원이 넘는 티켓 값에 어김없이 주춤하게 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인디 밴드를 만나볼 순 없을까. 음악 마니아지만 이런 아쉬움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지금 소개할 곳들을 찾아가 보자. 무료이거나 비싸야 2만 원 선에서 생생한 라이브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소파사운드 선택받은 자들의 방구석 콘서트



초대를 받으면 뮤지션의 라이브 공연을 코앞에서 즐길 수 있는 '방구석콘서트'가 있다. 초대를 받으려면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경쟁을 뚫고 당첨되어야 한다. 선택받은 사람은 대략 10명 정도 공연장이 작기 때문

에 어쩔 수 없다. 공연 직전까지 공연장소와 뮤지션도 비공개다. 황승를 팀장은 "3회까지는 라인업을 오픈했고, 4회부터 블라인드로 진행하고 있다. 몰랐던 뮤지션의 음악을 새롭게 알게 되는 드라마틱한 공연"이라 설명했다.

대신 모두 한 방에 모여 유명한 뮤지션과 함께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하우스 파티를 즐길 수도 있다. 바로 'Song from a room'이라는 약자의 소파사운드다. 영국에서 시작된 공연 문화가 드디어 서울에도 생겼다. 인지도가 높은 뮤지션들이 공연을 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연은 무료라, 소파사운드 자체도 비영리이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SNS 홍보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날 온 가수를 마음껏 찍고 SNS에 올려도 좋다! 이처럼 흥미로운 공연이 또 어디 있을까. 초대받기 위해 신청서를 정성스럽게 작성해보자!

## 비러스윗사운드 카페 안에서 버스킹을 즐긴다

합정과 상수 사이에 있는 비러스윗사운드. 금, 토, 일 저녁이 되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붙잡는 어쿠스틱 라이브가 들려온다. 비러스윗사운드는 동명의 힙합 듀오의 멤버 김현진이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이다. 흥대 버스킹 공연이 그대로 카페에서 진행된다. 커피 컨셉이다. 오픈된 공간으로 거리에서나 카페 안에서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입장료는 없다. 버스킹 무대가 그렇듯, 매 달 뮤지션들의 신청으로 선착순 배치해 일정표가 나온다. 인디 밴드를 많이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낯선 이름이 많겠지만, 그들의 라이브 공연을 듣고 어느새 팬이 된 자신을 발견할지 모른다.

에 케이팝스타에 출연한 이진아도 무대를 가졌었다"며 "우리 카페에서 공연한 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카페 한편에는 비러스윗사운드를 거쳐 갔을 이들의 앨범이 가득하다.



우리가 다 알만한 뮤지션도 왔을까. 김현진 사장은 "주로 흥대에서 버스킹을 하는 친구들이 오는데, 그 중

## 라이브 클럽데이 이런 라인업을, 10개의 클럽에서, 단돈 2만 원!

더 모노톤즈, 러브엑스테레오, 말로 블랙신들, 송영주 트리오, 악동 윤석철 트리오 & 배선웅

이승환, 임용훈 밴드, 정원영 밴드, 쿠바 포(POE), iamnot, (원현일, 양시은, 김준호)

MAY.29 2015

LIVE CLUB DAY

매 달 마지막 주 금요일엔 라이브 클럽 데이가 진행된다. 지금까지 4회를 맞이한 라이브 클럽 데이는 통합 티켓으로 흥대에 있는 10개의 클럽을 오가면서 이 승환, 정원영 밴드 같이 쟁쟁한 라인업의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이다. 2001년 3월 시작해 2011년 1월 공연을 끝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라이브 클럽데이가 부활한 것이다. 흥대. 인디 음악이 폭발하던 바로 그 당시와 많이 달라졌다는 흥대. 그러나 여전히 라이브 클럽들은 존재하고, 라이브클럽협동조합을 만들어 매 달 흥대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10개 공연장에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37개의 팀이 선보이는 무대. 종강을 맞이하고 찾아온 6월 마지막 주 금요일, 우리 모두 라이브 클럽에서 다시 만나길!



## 만데이 프로젝트

### 월요일을 완치시키는 평일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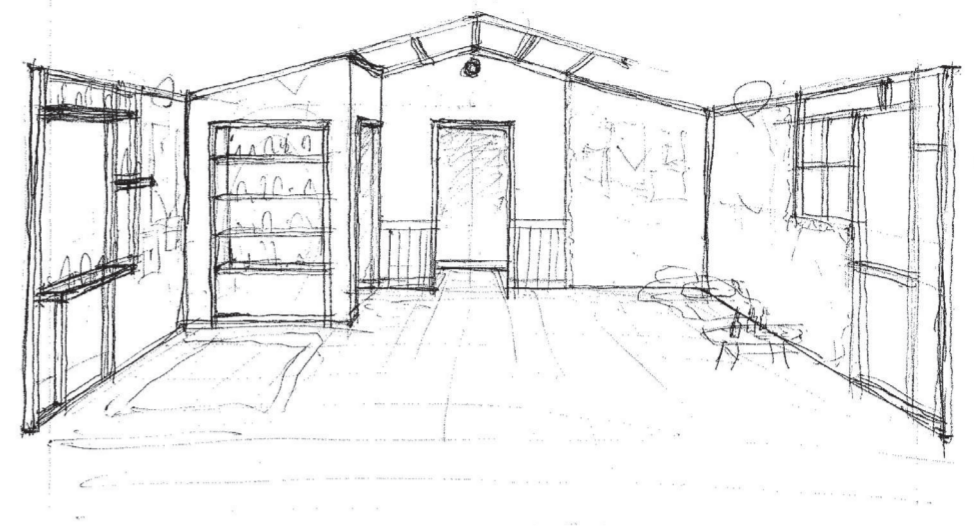
흥대 앞 많은 클럽, 볼룸, 주말이 아닌 평일엔 어떤 모습일까. 25일 월요일 8시. 조용하기만 할 것 같은 에반스라운지를 찾았다. 입장료는 만 원에 음료를 별도 주문을 해야 한다. 아담한 공연장 내부가 사람들이 채워지자 곧 공연이 시작됐다. 이 날 기자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뽕짝 소울 '만주한봉지'가 무대에 올랐다. 그 후 '스트레이'의 공연도 이어졌다.

평일 공연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만데이 프로젝트'는 에반스라운지와 클럽FF에서 진행된다. 에반스라운지의 박성자 매니저는 "사실 만데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평일에도 공연은 항상 있다. 사람들이 주말과 평일에 상관없이 음악을 즐겨주셨으면 한다"며 '뮤직 에브리데이' 정신을 전파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이제는 몸도 마음도 피곤해진 상태로 열거한 한 주말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아마무시한 실력을 갖춘 뮤지션들이 선보이는 무대로 월요일을 완치시키자.

## BACKSTAGE

연극의 메카 대학로에서 연극을 만들어가는 배우, 극본, 연출가들을 만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다. 무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연극을 소개한다.

## 연극 <반쪽 형제>



### 연극쟁이가 만드는 무대

연극 <반쪽 형제>의 무대에는 두 사람의 방이 꾸며져 있다. 누렇게 뜬 벽지에 가구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방과 원색의 벽지에 만화책과 피규어로 꾸며진 방이 대조적이다. 대학원까지 졸업했지만 아직 취준생인 진원과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문제아의 대표주자 상혁의 방이다. 무대도 연극의 일부가 돼 주인공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극 <반쪽 형제>는 두 형제만 등장하는 2인극이다. 피가 섞이지 않은 두 형제는 정반대의 성격으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한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 아버지의 유언 같은 중얼거림에 의미 모를 '상자'를 찾게 되면서 두 형제의 이야기가 진행된다.

<반쪽형제>의 무대 디자인을 맡은 민병욱씨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형제의 판이한 성격이 무대에서 드러난다. 가운데 공간은 거실로 두 형제가 가족으로 이어지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꼼꼼한 대본 분석을 통해 연출가가 원하는 것을 종합하여 구조를 정하고, 색감이나 질감까지 신경 썼다. 그는 "건축을 배운 적이 있어 집 무대는 가장 자신 있는 무대"라며 그가 무대를 만들 때 그랬던 설계도면을 보여줬다.

배우가 연기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무대를 만들었다는 그. 알고 보니 93년도부터 연극을 해온 베테랑 연극인이다. 그가 배우에게 가장 편할 무대, 연극의 내용을 살리는 최적의 무대를 선보일 수 있던 이유다. 그는 "본업은 배우가 맞다. 극단생활을 하면서 톱질, 망치질부터 시작해 무대 제작을 배웠다"며 무대 디자이너라는 말은 어색하다고 웃었다.

연극과 함께 살아온 민병욱씨에게 '반쪽 형제'는 어떤 작품인지 물었다. 가족극을 좋아한다는 그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이야기를 관객들이 많이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임태미 기자 taem14@hansung.ac.kr

### 독자이벤트

독자이벤트는 한성대 신문을 구독하는 학우분들에게 연극표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신문을 읽고 주관식 단답형 문제를 풀어주세요!

Q1. 사회 알바생들이 19대 법적 권리 중 가장 인지하지 못했던 항목은?  
Q2. 수습기자직위 대만의 노벨평화상을 모티브로 출수할 셋째주마다 장기로 진행되는 한복놀이단의 프로젝트 이름은?

• 지남호 당첨자 •  
503호 연극티켓 당첨자  
• 서현수(기 1)

• 추천방법 •  
정답자에 한해 추천하여 연극 <반쪽 형제>티켓(1인 2매)을 드립니다. 이름/학과/학년/연락처를 기재해 신문사로 방문하여 주세요.

당첨자는 신문사로 방문해 연극티켓을 수령해 가지면 됩니다.

## Gamesave

성공한 게임들은 대부분 대학시절에 친구들과 만든 게임이 많다는 사실! 'Gamesave'는 게임, 그리고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가는 칼럼이다.

### 불행한 청년시절을 딛고 일어난 인디게임 대부, 마르쿠스 페르손

“아버지는 감옥 가고, 동생은 마약 하고, 난 말 그대로 백수였죠.”

2009년 네모난 박스들로 이루어진, 어찌 보면 그 당시 3D게임의 그래픽에 한참 떨어져 보이는 게임이 조용히(?) 출시됐다. 여러 인디게임 중 하나로 금방 묻혀버릴 것 같았던 이 게임은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가 25억 달러(약 2조 5천억 원)를 주고 인수할 만큼 전세계적인 메가히트를 기록한 '마인크래프트'다.

마인크래프트의 아버지 '마르쿠스 노치 페르손'은 우울한 유년기를 보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했으며, 여동생은 마약까지 할 만큼 가정 형편도 어려웠다. 그는 나이가 들었어도 별다른 일자리가 없는 백수로 지냈다. 당시 그의 고국인 스웨덴은 닷컴 버블로 인해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문을 닫는 시기였다. 지금의 한국 대학생들처럼 대학을 나와도 마땅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시기였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르쿠스 페르손은 좌절하지 않았다. 현실은 불안했지만 묵묵히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게임이란 한길만 봤다.

전세계를 뒤흔든 마인크래프트는 참으로 우연한 기회를 통해 세상에 나왔다. 만년 백수인 마르쿠스는 그의 친구 카를마네(후에 모자의 공동 창업자

가 된다)가 이끄는 '제이엘밤'에 입사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인피니마이너'라는 게임을 발견했다. 땅을 파고 무언가를 건축하는 단순한 게임이었다. 하지만 영성하게 프로그램 된 이 게임은 해커들의 쉬운 먹이 감이 됐다. 해킹에 의해 게임 소스가 유출됐고, 아무나 그 소스를 사용해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마르쿠스는 유출된 소스를 이용해 '인피니마이너 클론'이라는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다. 이 작품이 그 유명한 '마인크래프트'의 전신이다. 처음부터 모든 걸 내려놓고 만든 마인크래프트는 한마디로 '자유' 그 자체였다. 게임 속 모든 세상을 유저가 직접 만들 수 있다. 유저는 땅을 파고 사냥을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박스를 이리저리 조합해 자신이 원하는 건축물, 나아가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게임 속 맵은 물론, 캐릭터, 아이템, 하다 못해 주변의 조그마한 사물까지도 직접 만들어야 한다. 얼핏 보면 불친절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유저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했다.

이러한 자유도는 UCC와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이루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프리카 TV를 통해 밍들이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덴마크 지리청에서는 마인크래프트로 덴마크 지도를 재현하기도 했다. 그는 마인크래프트로 정점에 있을 때 자신의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넘겼다. "기업가나 경영자가 아니라 개발자로 남고 싶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초심으로 돌아가 신작 개발에 매진하는 시절로 돌아갈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 된 후 개발자 마르쿠스 노치 페르손이 한 이야기다.

시작부터 자유로웠으며, 마지막에도 자유를 찾아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 마르쿠스 페르손, 그의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그랬듯 영원한 인디게임 개발자로 남아있다.

이덕규 게임어바웃 편집장 gabriel@gameabout.com

## 반쪽 형제

누나 공감을 할 수 없지만  
공유할 수 없는 우리 가족 이야기

주:창작시리즈  
2015  
05.01(금) - 08.16(일)  
상명아트홀 2관

제작/기획: jhplan  
주요출처: 공연문의 (주)주디컬처 JUDICULTURE  
jhplan  
에배문의 (주)주디컬처 070-4355-0010  
작/연출: 박상민  
프로듀서: 이자연  
연출: 인티마크  
비디오: 인티마크

# 낮설게 산다는 것

1학기 종강호를 맞이한 한성대 신문사 기자들. 종강호인 만큼 모든 기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템을 찾기 위해 머리를 모았다. 한참을 논의하던 중 신문사 내에서 가장 영동하기로 소문난 사회부 노유진 기자가 한 아이템을 제안했다.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뭔가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했다. 평소 안 하던 행동을. 어쩌면 반대로 살기를. 자취생이라 밖에서 식사를 때우기 일수였던 기자는 매일 아침 아침밥을 차려 먹었고, 이어폰이 없으면 등하굣길이 불안하다는 기자는 이어폰을 포기했다. 부끄러움이 많아 낮을 많이 기렸던 기자는 길에서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를 했고, 집에서 무뚝뚝한 아들이었던 기자는 엄마께 매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카페인 중독자였던 기자는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고, 아무리 바빠도 폴 메이크업을 고수했던 기자는 민낯으로 외출했다. 평소 치마라던 차를 떨었던 기자는 차마를 입었고 불꽃 카리스마의 편집국장은 기자들의 잘못에 화를 내는 대신 친절하게 대하기로 했다.

(편집자주)

**Rule 1.** 작심삼일 보다 하루 더, 4일간 진행한다. **Rule 2.** 매일 밤 12시, 소감을 기자들과 공유한다.

## “어떻게 매사에 친절할 수 있었어!”

### | 한재원 편집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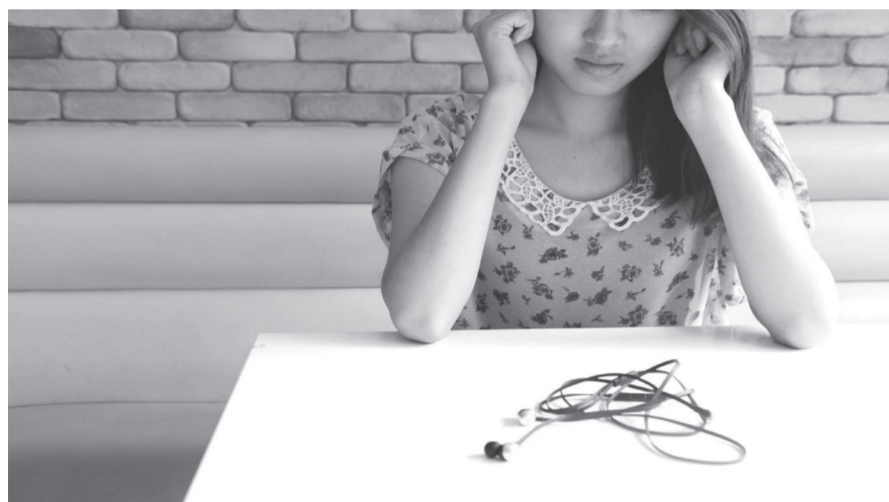
불꽃&폭풍 카리스마 편집국장. 신문에 있어서만큼은 기자들의 실수를 용납할 수 없다. 마감이 가까워오면 더욱 커지는 화의 불길. 그런 그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화를 내지 않고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로 했다.

1~2일차: 무난히 넘어갔다.

3일차: 마감이 다가오는데 기자들의 원고가 오지 않는다. 몇몇 기자의 취재가 원활하지 않은 것도 눈에 띈다. 여태까지 뭘 냈냐고

화를 내고 싶지만, 애써 꾀꾀 참는다.

4일차: 어제의 화를 참았던 탓일까, 속이 부글부글 끓음을 느낀다. 마감이 코앞인데 역시나 낮다. 기자들을 보고 있자니 화 밖에 안 난다. 모두에게 친절해야 했기에 최대한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신문사에서 기자들의 꼴을 보고 있자니 화를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집을 나서 영화관으로 갔다. 매드맥스를 보며 영화 속 액션에 대리 만족하며 화를 풀다. 그리고 4일이 지난 후 결국 화를 냈다. 참아온 탓일까 오히려 별 것 아닌 것에 화를 내게 됐다.



## “디지털 디톡스 필요없어요. 안사요.”

### | 최혜정 기자

슈퍼에 지갑은 안 가져가도 이어폰은 항상 들고 다니는 최 기자. 음악은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어폰을 끄는 명을 내리다니.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손이 떨린다.

1일차: 마음을 추스리고 자신있게 집을 나갔지만 곧 후회했다. 평소 즐겨듣는 노래를 떠올렸으나 한 소절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2일차: 평소애 듣는 것을 좋아했지만 음악 없이 걷고 있자니 팔없는 썬빵같다. 이동 거리가 너무 따분하다.

3일차: 이제 길가는 사람들의 이어폰이 눈에 들어온다. 타인의 이어폰을 뺏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음악을 못 들으니 지루하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

4일차: 내일부터 이어폰과 하나가 될 계획이다.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하루종일 음악을 듣는 것으로 풀 계획이다. 디지털 디톡스는 개불. 음악이 없으니 삶이 더 팍팍해졌다!

## “사랑한다는 말, 굳이 말로 해야 하나요”

### | 박종수 수습기자

대부분의 남자들은 부모님에게 감정표현을 절대로 안한다는(개인적인 의견) 박종수 수습기자. 마지막으로 엄마께 사랑한다는 말한 게 중학교 1학년 어버이날이다. 이참에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전하기로 했다.

1일차: 사랑한다는 말이 오글거리고 이상하다.

2일차: 사랑한다는 문자에 엄마의 답장이 없어 조금 여색했다. 이 문자를 보고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할까. 평소애 안하던 행동을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3일차: 결국 엄마는 내 행동이 장난이라고 오해하셨다. 급기야 엄마와 크게 싸웠다.

4일차: 사랑한다는 문자에 엄마가 무조건적으로 좋아할 줄 알았다. 엄마가 원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잘 하는 모습인 것 같다.



## “쌍얼때문에 자존감이 심해로 가라앉고 있어요”



### | 한지선 기자

늦어도 아파도 피곤해도 마스크라까지 폴메이크업을 하던 한지선 기자는 4일 간 쌍얼로 살기로 결정했다. 충격에 반 좀비 상태가 된 기자는 어디까지가 쌍얼의 기준이냐며 선배는 되지도 않냐고 말했지만, 결국 선택권밖에 허용되지 않았다.

1일차: 별거벗은 기분이다. 선글라스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2일차: 화장을 하지 않아서 준비하는 시간이 40분? 1시간가량 단축되었다. 단축된

시간만큼 마음 한 곳이 공허하다.

3일차: 오늘은 취재차 회의에 들어갔는데 회의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인기척이 들리자 모두 뒤를 돌아봤다. 그 사람들이 돌아본 이유는 분명 인기척이 났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쌍얼로 인해 자존감이 한참 낮아진 나는 그 눈빛이 '헐' 화장 안했어... '돌았어?' '???'이라고 하는 것 같았다.

4일차: 그냥 다 짜증난다. 마스크라로 속눈썹을 바짝 컬링 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나의 자존감은 이미 너털너털 해졌다. 자존감을 꼭 민낯에서 찾아야만 하나?

## “꼭 치마를 입어야 여성스러운 건가요?”



### | 오혜진 기자

“치마, 그게 뭐야? 불편 해! 편한 게 최고지!”란 마인드로 하지만을 고수했던 오기자. 1년 중 치마를 입는 날은 손에 꼽힐 정도다. 이런 그녀에게 내려진 특명은 치마만 입기.

1일차: 스타킹 신는 것부터가 고역. 치마를 입고 움직일 때마다 밀려오는 어색함에 숨이 막혔다.

2일차: 나를 본 친구 왈 “이 계집애, 무

슨 날인데 이런 걸 입고 왔어!! 너 남자생기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열)

3일차: 팔자걸음을 고치는 등 좋은 점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역시 나는 아직 예쁜 것보다 편하게 좋다.

4일차: 내 인생 가장 최고로 '여성스러웠다' 4일. 그런데 내가 왜 치마로 여성스러워야 하는거야! 1년 내내 치마만 입고 싶다.



## “물 없인 살아도 커피 없이는 못살아요”

### | 김민정 수습기자

하루를 시작하는 테이크아웃 커피, 빠센 하루 스케줄을 함께하는 휘핑가득 달달한 커피. 커피 없이는 못살다는 수습기자. 그녀는 4일간 커피와 강제 이별 당했다.

1일차: 아직 참을만 하다. 어제 커피를 잔뜩 마셔두길 잘했다.

2일차: 나는 입도 못 대는데 앞에서 커피를 마시는 혜진 선배가 야속하다.

3일차: 점점 피곤에 찌들고 있지만 연속된 취재에 커피없이도 어느새 하루가 지나갔다.

4일차: 하루 종일 “졸려, 피곤해, 배고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마주치는 애들마다 “언니 오늘 되게 힘들어 보인다”며 말을 걸었다. 진짜 힘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하루였다. 내일 아침은 꼭 커피 한잔으로 시작해야지. 커피는 나에게 보약 같은 존재이기에.

## “모두가 인사를 받아주진 않았지만...”

### | 노유진 기자

평소 소심하다는 말은 노 기자를 설명하는 수식어. 당황하거나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금세 얼굴이 빨개지며 그녀의 동공은 방향한다. 그런 그녀의 자신감을 찾아주기 위한 프로젝트. 눈을 마주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해야 한다.

1일차: 소리를 내면서 인사를 했는데 무시 당했다. 순간 너무 창피해서 머리가 아팠다. 내 자신감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내일

은 어떡하지... 또 땅 보면서 걸어야하나. 걱정된다.

2일차: 도서관 입구에 계시는 아저씨께 인사를 하니 며칠 되지 않았는데 친해진 것 같다. 나만의 착각일 수도...

3일차: 오늘도 사람들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

4일차: 학교에 계신 분들이 인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인사를 건넌 여유가 조금이나마 생긴 것 같다. 그치만 나의 용기는 타인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되버렸다.



## “아침밥을 먹기엔 돈도 요리 실력도 없는걸요”

### | 임태미 기자

잠이 많기로 소문난 임 기자. 혼자 자취를 하는 그녀는 밥을 제때 챙겨먹지 않는 걸로 주변의 걱정을 산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아침밥을 직접 차려 먹기로 했다. 과연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1일차: 아침을 먹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게 고역이다. 대중 차려먹은 티가 역력하다.

2일차: 상쾌한 아침. 요리를 하는 부지런

한 나. 그런데 식기가 영망이라 전혀 분위기가 안난다.

3일차: 친구와 아침을 먹다.

4일차: 엄마가 집에 왔지만 차마 같이 아침을 먹을 수 없었다. 냉장고와 주방 상태는 도저 엄마가 요리를 해주실 상태가 아니었기에. 아침밥을 차려먹을 능력도 돈도 부족한 자취생에게 아침밥은 오히려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아침밥을 먹기로 한 4일간 사둔 재료는 어느새 버려야 할 상태가 되어 버렸다. 심지어 맛도 없었다.

# 철저히 타자화 되는 것

낮설게 살아 본 4일.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기자들에게는 더 없이 긴 기간이었다. 개인의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해 낮설게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당연한 일을 '정도'가 지나치다' 혹은 '잘못되었으니 고쳐보라'고 타인이 결정 내렸기 때문이다. 철저히 그들의 시선에서 말이다.

‘오른손으로 연필 잡아라’, ‘젓가락질 똑바로 해라’, ‘너 머리색이 너무 튀다’, ‘답지 않게 왜 그러니’ 우리사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오른손으로 연필을 잡는 것, 젓가락질을 정석대로 하는 것, 머리색이 튀지 않는 것, 성별단계 행동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철저히 생소한 일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은연중에 누군가에게 낮설게 살기를 요구한다.

각 기자에게 주어진 '미션'은 당사자를 제외한 타인의 시선에서 정해진 것들이다. '우리가 보기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는 유독...'이라며 철저히 타자화 되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그리고 '너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라는' '객관'과 '보편'이라는 가치로 왜곡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의 미션을 정할 때는 서로 맞장구를 치며 당사자가 미션을 받아들일 때 까지 온갖 근거를 대며 이를 강요했다.

우리는 '낮설게 살아보기'라는 실험을 통해 타자화 되어가는 자신은 꺼리면서 타인에게는 타자화 될 것을 은연중에 강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론은 이렇다. 애초에 '낮설게 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모두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속이 타들어갈 필요도 없고, 디지털 디톡스라는 요란한 이유로 이어폰을 포기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카페인을 많이 마시는 것은 개인의 선택일 뿐 타인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과 다를 필요도 없었다. 나 혼자 억지로 낸 용기를 타인이 이해해주길 바랄 필요도 없었다. 체질에도 맞지 않는 아침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굳이 별거벗은 나에게서 자존감을 찾는 필요도 없었고, 치마로서 여성성을 확고히 할 이유도 없었다.

지난 4일 간의 체험을 통해 '낮설게 산다는 것'은 '철저히 타자화 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거부하면서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어쩌면 오늘 저녁 티비를 보며 생각할지 모른다. '저 연예인은 왜 살을 안 빼지?', '저 남자 연예인은 답지 않게 여성스러워?'라고 그리고 '저런 소심한 성격은 고쳐야 해', '여자가 왜이렇게 거절어리며 말도 안되는 오지랖을 떨면서.'

# 전통, 청년들에게 열리다

소외되었던 우리 나라의 전통문화가 최근 젊은이들에게 다시 각광받고 있다. 한복파티를 열거나 한복에 인공 세 계 요소를 한 그 비주얼 효과를 연출하며 한복에 전근대적 느낌을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복이 점점 주목 받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한복의 전례문화까지도 재조 명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한복과 전통문화에 대 중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한복파티를 개최하는 한복동아리 '꽃신을 신고'

덕성여대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다보면 어 느새 시끄러운 일상의 소리는 잦아들어 간 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좀 조용한 숲과 차분한 느낌의 신식 한옥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문을 열고 신식 한옥 건물을 통과 해 밖으로 나온다. 넓게 펼쳐진 마당에 오색 빛깔 한복을 입은 고운 자태의 여성들이 삼 삼오오 짝을 지어 까르르 웃으며 사진을 찍 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지난 28일, 덕성여대 덕우당에서 제5회 한 복파티인 '별밤: 별빛이 내린다'가 열렸다. 누구나 참가비 5,000원과 한복 대여비 12,000원만 내면 랜덤으로 한복을 대여 받아 한복을 입고 덕우당에서 파티를 즐길 수 있 었다. 이런 이색적인 파티를 개최한 것은 바 로 덕성여자대학교의 한복 동아리 '꽃신을 신고'였다. '꽃신을 신고'는 홀대받는 전통의 복의 대중화를 꾀하는 동아리로 한복파티와 한복나들이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꽃신을 신고'는 한복의 매력을 조명미와 창조미, 그리고 조화미 세 가지로 설명한다. 한복의 조형미는 짧은 상의와 길고 폭이 넓은 치마가 주는 안정감과 우아미를 의미한 다. 창조미는 한복을 입었을 때 사람의 몸에 맞추어 등글게 떨어지는 곡선적인 아름다움 이 주는 임체미를 말한다. 마지막인 조화미 는 직선과 곡선의 조화로 이루어진 한복의 대표적인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꽃신을 신고'는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 진 한복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 그

## 우리는 한복의 대중화를 꿈 꾀다

러나 그들은 대중들이 한복에게 관심을 가 질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주 최하는 한복파티에 참여한 대중들이 한복을 입고 즐기며 자연스럽게 한복과 가까워지기를 바란다. '꽃신을 신고'는 한복과 대중이 가까워질 '기회'를 만드는 것이 자신들의 소 임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한복파티에 참여한 강소현(덕성여 대 2) 학생은 "어렸을 적에만 일던 한복을 성 인이 되어 다시 입을 기회를 만들어 줘서 고맙 다"며 '꽃신을 신고'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는 '한복놀이단'

대학로에 위치한 마로니에 공원. 공원을 거니는 사복 차림의 사람들 틈에 선글라스 를 쓰고 장옷을 뒤집어 쓴 수상한 여인들 몇 명이 눈에 들어온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 기며 힐끔힐끔 쳐다보는 순간, 마로니에 공 원에 음악이 울려 퍼진다. 그와 동시에 수상 한 여인들이 공원 한복관에 레드카펫을 펼 친다. 그리고는 선글라스를 쓴 한 여인이 레 드카펫 위로 올라 '광장시장 한복 파노라마 전'이라고 적힌 종이를 펼쳐든다. 한복놀이 단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한복놀이단은 2010년 한복의 대중화를 위 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비영리단 체로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복 의식개선을 위한 한복날리기 캠페인과 더불어 보다 쉽게 한복을 접하기 위 한 꽃이 타는 지하철, 한복 가면무도회, 한복 판 등을 기획했다.

'꽃이 타는 지하철'은 대만의 노랜츠데이 를 모티브로 한 프로젝트로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인 지하철에서 한복을 입고 플래시몹을 진행한다. 홀수달 셋째 주에 장기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단시간만 한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노랜츠데이처럼 하루를 온전히 한복을 입고 보내는 것을 최 종 목표로 삼고 있다.

'한복 가면무도회'는 한복놀이단에서 매년 연말 한복을 입고 진행하던 작은 모임에서 시작했다. 작게 진행하던 모임이 민간단체지 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 에 따라 규모가 커져 한복과 가면무도회의 컨셉으로 파티를 연 것이다. 그렇게 열린 파 티는 성공적이었고 한복놀이단은 그 성공 에 힘입어 올해 연말에 다시 한복 가면무도회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복관은 한복진흥센터에서 국가사업 후 원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는 전국에 있는 한복동아리 중 20개를 선발하여 그 동 아리나 그 동아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동덕여대의 '꽃신을 신고' 가 주최한 한복파티도 이 사업의 수혜를 받 았다. 이외에도 한복놀이단은 한복과 소품 만들 기 수업, 할로윈데이 한복 퍼레이드 등 한복 을 더욱 알리고 대중화할 다양한 프로젝 트들을 논의하고 있다.

김민정 수습기자 kmj@hansung.ac.kr



## 외국인, 내국인 모두 즐기는 '코아유'



'아리랑스쿨'은 외국인들과 청년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는데 도움을 주는 한국 문화체험아카데미로 우리나라뿐만 아니 라 베트남에도 있으며 가야금과 서예, 한 국화를 가르친다. 그리고 국악, 서예, 한국 무용 등의 한국문화를 전공하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당신은 대한민국의 보물임 니다'라는 이름의 장학금을 수여해 학생 들의 학업을 돕는 일을 한다.

'한글 유랑단'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 리는 문자외교 사절단으로 한글날을 맞 아 한글 보물찾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 다. 또 한글과 한자를 조합하여 문화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해 새로운 문자를 창조 해나기도 했다.

코아유의 설립자 문현우 대표는 "민족 문화를 보존하는 것 보다는 발전시켜 계 승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통문화가 대중화되지 않은 것은 젊 은이들이 전통문화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 기 때문"이라며 "일반인들도 쉽게 접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을 만들고 싶 다"고 문화 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 다.

이러한 의도로 코아유는 일반인들 도 별도의 준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조선놀이단'을 기획하고 있다. '조선놀 이단'은 우리나라의 놀이문화를 활용한 단체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제 기차기 대학생 챔피언십'과 같은 놀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정 수습기자 kmj@hansung.ac.kr



## 과녁을 향하여 가슴은 비우고 정신은 맑게

우리는 사극에서 정수가 멋있게 활을 쏘 는 모습을 보면 한 번쯤 직접 활을 쏘는 상 상을 해본다. 하지만 활을 구경하기도 힘든 것 이 현실이다. 그런데 혹시 모른다. 우리 주위 에 국궁 동아리나 국궁 전문가가 숨어있을 지도...!

##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들의 국궁 경연

1월 황대로 서있는 남·녀 참가자들이 순 서대로 과녁을 향해 활을 쏜다. "홍심!2점!" "번!!점!" 심사위원의 외침에 공사들은 안도 하거나 좌절한다.

지난 4월 25일 육군사관학교 전통 활터 '화랑정'에서 '제1회 육군사관학교장기 전국 대학 국궁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 는 29개 대학에서 200명 가량의 학생이 참여 하여 자신의 활솜씨를 뽐냈다.

대학생들의 국궁에 대한 관심을 조직화하 고 확대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기 존 대회에서 사용되는 145m 원거리 과녁과 입문자를 위한 50미터 근거리 과녁을 병용 하였다.

이번 대회 종목인 '50m 근거리 꽃힐 과 녀 쏘기'는 일반 대회에는 없으나 입문자를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모의 기사 체험이나 활 전시회 등 대학생들이 활과 관련된 문화 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들이 마련되 었다.

김기훈(전국대학 국궁대회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국궁은 고품격 전통문화를 재미 있게 심신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라고 생각한다"며 "국궁이 전통문화인 동시



에 현대 스포츠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 목표로 향하는 사나운 화살, 삼육대 국궁동아리 '폭시'

삼육대 국궁 동아리 '폭시'는 10명의 동아 리원이 개인전 10명, 단체전 1명(6명)으로제 1회 육군사관학교장기 전국대학 국궁대회' 에 참가했다. 그들은 단체전 50m를 포함하 여 4개 부문에서 상을 받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화살이 날아가 과녁에 박힐 때의 그 소리 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안겨줍니다" 임현준 '폭시(국궁 동아리)' 회장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국궁을 시작했다. 그 호기심을 시작으로 국궁 동아리 '폭시'를 만든 것이다.

"처음 국궁을 쏘는 때는 과녁까지 날아가 지도 못했어. 하지만 다음 모임에서는 과녁 에 맞출 수 있었죠"라며 국궁을 처음 쏘던 순간을 회상했다.

국궁을 쏘는 것에 대해 "한 번 겁이 오면 그 뒤로는 얘기가 쉬워지죠. 노력과 약간의 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앵그리버드(스 마트폰 게임)와 비슷한 것 같아요"라고 설명 했다.

임 회장은 국궁을 '스트레스 풀 때 굉장 히 좋은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 궁은 생각이나 자세가 흐트러지면 화살이 이상한 곳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신체를 제 어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방법을 자연스럽 게 익힐 수 있는 운동이다. 이외에도 활의 세기가 다양해서 낮은 호수(파운드)로 시작 하여 점차 호수를 높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에 근육이 붙게 된다.

대회 참가에 대해 임현준 회장은 "첫 대 회인 만큼 긴장도 많이 됐지만 유익한 시 간 이 되었습니다"고 대회 당시의 소감을 전했다.

"영화 '최종병기 활'에 나온 것처럼 화살 에 커브를 실을 수 있나요?" "타 대학 동아 리랑 점수 내기 한 적 있으세요?" "국궁을 쏘 때 풍향이나 풍속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하나요?" 삼육대 국궁 동아리를 인터뷰 하 면서 어느새 내 머릿속 한 구석에는 언젠 가 국궁을 배워야겠다는 다짐이 자리 잡 았다.

박중수 수습기자 pjs12041204@hansung.ac.kr

